

통합치료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최예린(명지대학교)

부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총 무 : 홍혜영(명지대학교)

학술편집분과 : 김수지(명지대학교) 최광현(한세대학교)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

국제교류분과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학제간연구분과 : 이은경(명지대학교)

학교교육분과 : 송민애(연세대학교) 유경훈(송실대학교)

임상치료분과 : 곽은미(한빛음악치료센터) 이동숙(카톨릭여성의전화)

간 사 : 이재춘 장빛나

감 사 : 김청자(상명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차 례〉

-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대화방법 특성-차레지키기와 주제유지 방법을 중심으로-
양정연 · 최예린(서울탐소아정신과 · 명지대학교) 5

 -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 연구
한송이 · 홍혜영(명지대학교) 25

 - 긴장 이완을 위한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 연구
유가을(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 49

 - 공무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명숙 · 홍혜영(명지대학교) 63
-
-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85
 - <별첨 2> 투고규정 / 88
 -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89
 -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97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대화방법 특성 - 차례지키기와 주제유지 방법을 중심으로 -

양정연·최예린*
서울탐소아정신과·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을 언어연령으로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대화방법 중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주제유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언어연령 6세 3개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10명과 이들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으로 구조화된 상황과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연구자와 말 주고받기를 하여 대화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집단과 차례지키기 유형 간 발화 빈도수 차이 결과, 집단과 차례지키기 유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또한, 차례지키기를 인접발화, 비인접발화, 불명료발화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인접발화 빈도수가 많았으며, 비인접발화 빈도수는 적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불명료 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집단과 주제유지 여부에 따른 발화 빈도수 차이 결과, 집단과 주제유지 여부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두 집단 간 주제유지 여부의 발화 빈도수 차이 결과, 두 집단 모두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두 집단 간 주제 유지 발화 빈도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더 많았다. 셋째, 집단과 주제유지 방법에 따른 발화 빈도수 차이 결과, 집단과 주제유지 방법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두 집단 간 주제유지 방법 발화 빈도수의 비교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새로운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의 발화 빈도수가 더 많았다. 넷째, 대화방법에서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주제유지 방법을 구조화된 상황과 비구조화된 상황으로 살펴본 결과,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주제유지 방법 모두에서 집단과 구조화 유무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었다. 또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핵심어 : 자폐스펙트럼장애,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주제유지 방법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조교수(yaelinchoi@gmail.com / 02-300-0882)

■ 게재 신청일 : 2010년 4월 12일 ■ 최종 수정일 : 2010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들은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언어가 의사소통 활동의 주요 수단이 된다. 의사소통 기술은 아동이 두 살이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동은 주고받기, 주제 시작하기, 잘못된 의사소통 수정하기, 질문에 대답하기와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한다(Haff, 2007). 또한 대화 상대방에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두 세 번 차례가 오는 짝막한 대화에 끼어들 수 있으며, 논의 주제를 소개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Owens, 2007).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시도자(대화의 시작 혹은 대화를 유지하는) 혹은 반응자(다른 사람의 시도에 반응하고 대화를 유지하기)의 역할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Quill, 2005). 또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상황과 관계된 지식, 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식의 전제 기술과 청자를 위한 새로운 문맥의 설명을 포함한 참조적 기술, 주제 개시, 주제 유지, 화자의 발화 중간에 방해하지 않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Owens, 2004).

하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달리 이러한 언어, 의사소통 능력과 발달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성 결핍, 낮은 인지수준과 함께 자폐증의 핵심 양상으로 정의되어 진다. 하여레(2006)는 자폐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시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융통성이 없어 부적절하거나 관련 없는 응답을 하는 등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대화 시 화자와 청자가 교대로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어떻게 문장을 끝내야 할지, 언제 주제를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 혼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김영태, 2002).

지금까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며, 부분적으로 화용적 측면에서 연구(조성숙, 2002)가 되어져 왔다. 김은경(2006)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폐 교육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자폐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연구들이 전체 분석 논문의 50%이상을 차지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주제가 주를 이룬 이유를 자폐의 주된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자폐의 대표적인 특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결함과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 대상이 자폐 유아 및 초등 연령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 자폐 관련 연구가 한정된 연령에 대한 편향된 연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에 대화방법의 말 주고받기에 대한 연구는 학령전기의 정신지체(최유미·전병운, 2003),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김성운·이윤경, 2007), 단순언어장애(이효진·김영태, 2001)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자폐아를 대상으로 한 대화방법에 대한 연구는 언어발달 초기단계의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조성숙, 2002) 한 편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자폐 아동과 자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과 일반 아동에게 동일한 대화상황을 제시하여, 아동과 연구자간 대화 자료를 분석,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특히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한 대화방법 중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주제유지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 가. 집단과 대화 차례지키기 유형(인접발화, 비인접발화, 불명료발화)에 따라 발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 나.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여부(주제유지 발화, 주제 비유지 발화)에 따라 발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 다.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방법(정보를 더하는 방법,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발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 라. 집단과 구조화된 상황 유무에 따라 발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 1) 집단과 구조화된 상황 유무에 따라 대화 차례지키기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 2) 집단과 구조화된 상황 유무에 따라 대화 주제유지 여부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 3) 집단과 구조화된 상황 유무에 따라 대화 주제유지 방법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특성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라는 용어는 1994년 발행된 미국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에 의하여 명시된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의 한 증후군으로서 생후 3년 이내에 전반적인 기술영역에서 발달적인 지체나 장애가 관찰되는 스펙트럼장애(Spectrum Disorder)이다(양문봉, 200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주된 특징은 의사소통 결함이다. 이런 결함은 수용과 표현 언어 둘 다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 개인별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폐증을 가진 아동은 표현 언어에 상당한 지체를 보이고, 의사소통 기술이 의미 있게 발달되지 않는다(Seltzer, Shattuck, Abbeduto & Greenberg, 2004). 또한, 자폐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언어적인 행동의 상호작용 어려움, 친구 만들기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공동 관심사 제한, 그리고 사회 감정적인 상호관계의 결함이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00). 이러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자폐증을 가진 대다수가 사춘기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영역에 결함이 남아있다(Seltzer et al., 2004).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경우, 3/4정도가 반향어와 대명사 반전을 사용하고, 강박관념적 질문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어사용(변화 없는 억양, 꾸미지 않는 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eltzer et al., 2004).

Loveland, Pearson, Ortegon, Kotoski & Gibbs(2001)은 자폐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행동을 적절하게 하는지 자폐증이 없는 아동과 비교 연구하였는데, 자폐증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나타냈으며, 대화에서 상호작용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판단의 어려움이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인식과 연결되고, 사회 감정적인 단서 해석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에 관해 추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2. 대화방법의 선행연구

그동안 외국에서는 자폐 아동의 대화 능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폐 아동의 대화방법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

를 먼저 살펴보고 국내의 연구를 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Loveland, Landry, Hughes, Hall & Mcevoy(1988)은 자폐 유아와 부모와의 놀이상황에서 의사소통 사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자폐 유아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무반응의 사건이 더 많았고, 다른 집단 유아들보다 더 적은 긍정과 발성 주고받기 그리고 제스처 산출, 의사소통의 시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altaxe(1977)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대화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들은 청자, 화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며, 인칭 대명사 ‘나’, ‘너’ 사용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손한 행동과 같은 대화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우선 이승복(1994)의 연구가 있다. 그에 따르면, 대화를 주고받는 기술(turn-taking)은 상당히 배우기 힘들며, 자기가 말할 차례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이어받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기술은 특히 배우기 어렵다고 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만 5세 정도면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12번 정도 주고 받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학령기가 되면서 더 분명하게 숙달되어 간다고 하였다.

조성숙(2002)은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대화방법 중 차례지키기와 주제유지 방법을 중심으로 일반 아동과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언어발달 초기단계의 자폐 아동은 대화의 차례지키기, 대화의 주제 유지능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다.

정신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의 말 주고받기 특성 비교연구(최유미·전병운, 2003)에서는 정신지체 아동의 의사소통 내용 중 말 주고받기의 사용 비율을 알아보고, 그 결과가 일반 아동과 비교 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언어연령을 동일하게 일치시킨 정신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은 말 주고받기 하위영역의 사용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영역도 있었다. 정신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말을 주고받을 때,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는 하고 있으나, 일반 아동에 비해 적절한 ‘시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정신지체 아동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지와 욕구가 적고 질문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적절한 반응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정신지체 아동이 대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반응을 못하거나, 반응 대신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접 쌍은 부적절한 인접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두 집단에서 모두 발화 정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시도나 반응보다 고차원적인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통 4, 5세 아동이 가능한 연령인데 이 연구 대상은 아직 4세 초반이라 말 주고받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김성은과 이윤경(2007)은 ADHD 아동의 대화 주고받기 특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보았다.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의 경우 말 차례를 적절하게 주고받지 못하며, 대화 시 상대방의 발화와 중복되는 발화를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화 빈도에 비해 주제를 유지하여 산출하는 발화의 비율은 낮았으며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비율은 높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효진과 김영태(2001)는 4;0~5;11세 사이의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의 아동-성인간 대화 주고받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은 말 차례주고받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성들의 양상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였다. 즉 교대로 말 차례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성인의 선행 발화에 비교적 높은 반응율을 보였지만, 일반 아동에 비해 말 차례주고받기상의 실수인 문장초 중첩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또한 상대방 발화에서 마침지점을 적절하게 예상하지 못하여 일반 아동보다 문장내 중첩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말 차례당 발화수가 유의하게 적었고, 성인의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율 및 의미연결 반응율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특수학교 재학 중이고, 생활연령이 14세에서 19세인 최소한 2어문 이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며, 언어연령이 5세 이상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10명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1)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CARS)검사 결과, 30점 이상으로 자폐가 있다고 판단되며, (3)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test)결과 사회연령이 5세 이상, (4)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결과 언어연령이 5세 이상, (4)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신체적 장애(시각적 장애, 청각적 장애, 신체적 결함, 심한 행동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언어연령 평균 6세 3개월, 사회연령 평균 6세 6개월이었다.

일반 아동은 (1) 부모와 주 양육자, 교사에 의해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된 아동들 중에서, (2)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5세 이상, (3)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결과 언어연령이 5세 이상, (4) 시각 및 감각장애나 심각한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 일반 아동의 언어연령은 평균 6세 3개월, 사회연령은 6세 7개월이었다.

2. 조사내용

가. 자료수집

아동-연구자간 대화에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을 수집하기 위해 구조화된 활동과 비구조화된 활동을 미리 준비하여 자발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말 주고받기 특성(김성은·이윤경, 2007)연구에서 대화 자료 수집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유도 절차로 일상생활 상황 카드 보고 말하기를 선정하였으며, 비구조화된 절차로 찰흙놀이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상생활 상황카드에는 아동에게 친숙한 병원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는 상황, 패스트푸드점 사용하는 상황, 놀이공원 상황 3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찰흙놀이는 찰흙놀이에 필요한 조형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동이 원하는 찰흙놀이를 선택하도록 하여 발화를 수집하였다. 아동과 연구자 간의 말 주고받기를 총 100발화를 수집하여 대화방법을 모두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나. 자료 수집 절차

대화방법의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아동의 집 또는 아동이 속해있는 어린이집이나 센터 내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연구자는 모든 아동에게 <표 1>과 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아동이 발화를 산출할 경우에는 “응 그렇구나”, “맞아”, “정말?”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제시한 후, 후속 질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지하였다. 아동이 발화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구자가 먼저 발화를 시도하되, 가급적 아동의 반응을 기다려 주었다. 이효진, 김영태(2001)는 대화 도중 말 차례주고받기에서 아동이 반응할만한 시간(3초 이상)을 주고 아동이 반응하는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에게 3초의 반응 시간을 주었다. 또한 연구자와 아동의 발화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말 차례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의 말이 길어질 경우, 즉 연구자의 차례를 주지 않을 시에는 아동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 주었다.

〈표 1〉 아동-성인과의 대화에서 화제도입을 위한 공통 발화

활동	대화주제	화제 도입 공통 발화
	병원에서 상황	“병원이네”, “병원에 가본 적 있니?”
일상생활 상황 카드	패스트푸드점 상황	“여기가 어딜까?”, “OO는 어떤 거 좋아하니?”
	놀이동산 상황	“놀이동산 기본적 있니?”, “가서 어떤 놀이 기구 탔어?”
찰흙놀이	아동 선택	“우리 찰흙으로 어떤 거 만들까?”

3. 자료 분석 방법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과 일반 아동들의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조성숙(2002)의 대화방법 분석기준에 따라, 대화 차례지키기 발화 빈도수, 대화의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 주제유지 방법의 차이의 발화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가. 대화의 차례지키기

대화의 차례지키기의 평가방법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어른이 먼저 한 말에 아동이 반응하는 경우는 인접 발화로, 둘째로 아동이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경우는 비인접 발화로, 세 번째는 아동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료발화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나. 대화의 주제유지 여부

어른이 먼저 한 말에 아동이 반응하는 인접발화 중에서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다. 대화의 주제유지 방법

주제유지 방법은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발화에서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 방법과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 방법으로 구분 하였다.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주제유지 방법으로는 확장, 교대하기, 설명하기를 포함하였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주제유지 방법에는 모방, 대답, 틀에 박힌 구문(인사말, 광고, 동요의 일부분), 재부호화,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을 포함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빈도를 기록 하였다.

라. 자료 전사

아동-연구자간 말 주고받는 상황을 비디오로 모두 녹화하고, 대화 자료를 수집한 후 1-2 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 중 제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전사자료 중, (1) 아동이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 하는 경우, (2) 아동이 말하는 동안 연구자가 잘못 개입하여 발화가 겹치게 된 경우, 3) 아동과의 라포형성을 하기 위한 대화 상황은 연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마. 통계분석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ASW Statistics(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집단과 하위영역의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바. 신뢰도

신뢰도 평가자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명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2명과 일반 아동 2명의 자료를 임의로 추출하여, 녹화된 자료와 전사 자료를 통해, 대화 차례지키기 발화 빈도, 대화의 주제유지 발화 빈도, 주제유지 방법의 발화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와 평가자내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간 신뢰도 결과는 차례지키기 빈도수 신뢰도 94%,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 신뢰도 93%, 주제유지 방법 빈도수의 신뢰도 98% 였다. 평가자내 신뢰도 결과, 차례지키기 빈도수 신뢰도는 96%,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 신뢰도는 95%, 주제유지 방법 빈도수의 신뢰도는 97% 였다.

IV.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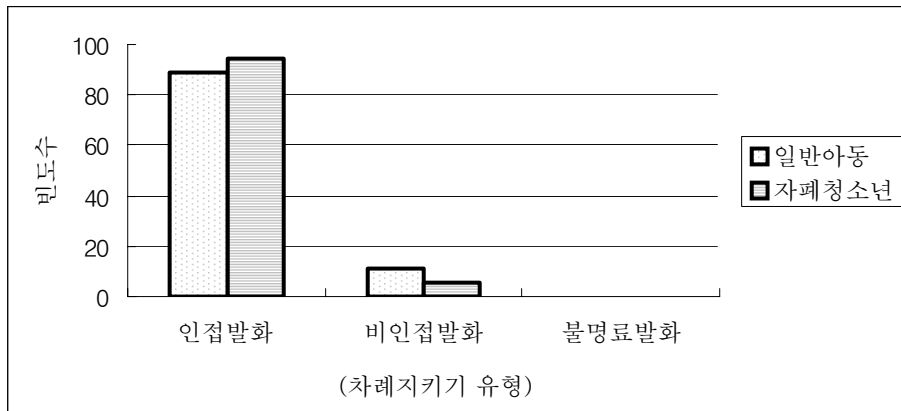
1. 집단과 대화 차례지키기 유형(인접발화, 비인접발화, 불명료발화)에 따른 발화 빈도수의 차이

집단과 차례지키기 유형에 따라 발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집단과 차례지키기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p < .001$).

<표 2> 집단과 차례지키기 유형에 따른 빈도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ource)	F-값	p-값
집단	.000	1.000
차례지키기 유형	9601.850	<.001
집단*차례지키기 유형	31.191	<.001



<그림 1> 집단 간 차례지키기 하위유형의 빈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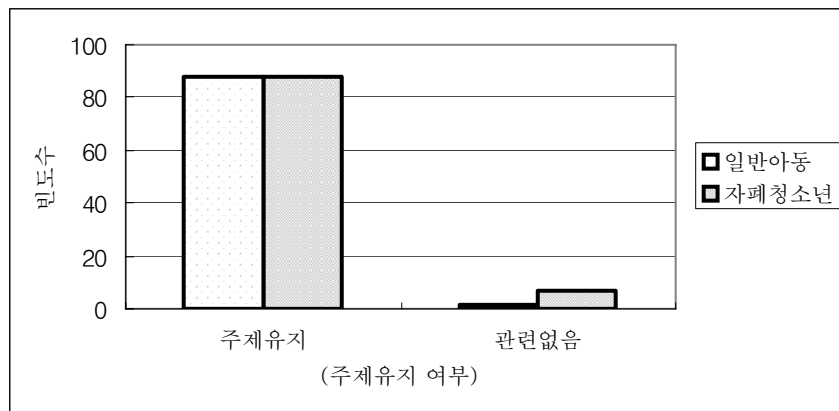
<그림 1>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인접발화가 비인접발화보다 더 많았다. 인접발화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94.8±3.0)이 일반 아동(89.0±2.8)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비인접발화는 일반 아동(11.0±2.7)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5.2±2.9)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불명료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여부(주제유지 발화, 주제 비유지 발화)에 따른 빈도수의 차이

집단과 주제유지 여부에 따라 발화 빈도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하였다. 집단과 주제유지 여부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p < .05$).

<표 3>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여부에 따른 빈도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ource)	F-값	p-값
집단	8.796	.005
주제유지 여부	7379.895	<.001
집단*주제유지 여부	6.024	<.05



<그림 2> 집단 간 주제유지 여부의 빈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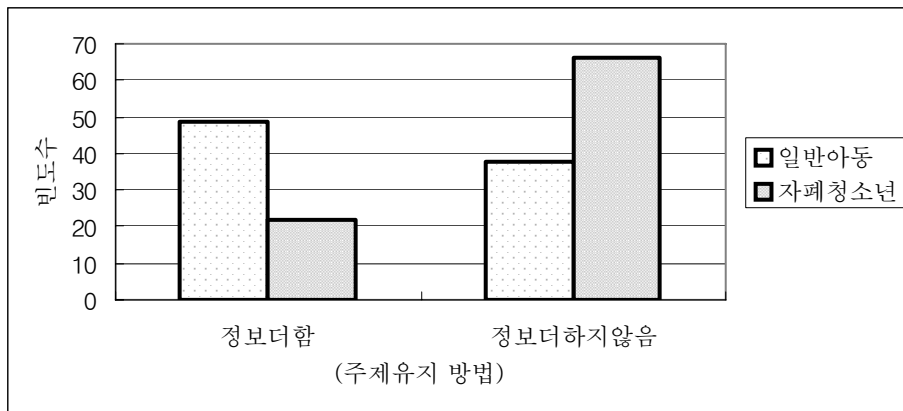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가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보다 더 많았다. 일반 아동(87.7±3.3)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88.2±4.3)간의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는 일반 아동(1.3±1.1)보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6.6±2.7)이 더 많았다.

3.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방법(정보를 더하는 방법,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에 따른 발화 빈도수의 차이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방법에 따라 발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과 정보더함 유무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p < .001$).

<표 4>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방법에 따른 빈도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ource)	F-값	p-값
집단	.184	.670
정보더함 유무	118.010	<.001
집단*정보더함 유무	338.248	<.001



<그림 3> 집단 간 주제유지 방법의 빈도수 비교

<그림 3>을 살펴보면, 일반 아동은 정보 더함, 정보 더하지 않음 순서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은 정보 더하지 않음, 정보 더함 순서로 발화 빈도수가 많았다. 일반 아동 (48.9±1.5)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21.7±1.5)보다 정보를 더하는 방법의 발화 빈도수가 더 많았다. 반면에,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66.0±1.5)이 일반 아동(37.5±1.5)보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의 발화 빈도수가 더 많았다.

4. 집단과 구조화된 상황 유무에 따른 빈도수의 차이

대화방법에서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그리고 주제유지 방법을 구조화된 상황과 비구조화된 상황으로 나누어 분산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차례지키기 구조화 유무에 따른 빈도수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집단과 차례지키기의 구조화 유무에 따른 빈도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ource)	F-값	p-값
집단	.000	1.000
구조화유무	.000	.986
집단*구조화유무	.000	.986

집단과 구조화 유무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었고, 집단 간 구조화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제유지 여부에서 집단과 구조화 유무에 따른 빈도수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집단과 주제유지여부의 구조화 유무에 따른 빈도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ource)	F-값	p-값
집단	.090	.765
구조화유무	.027	.869
집단*구조화유무	.007	.934

집단과 구조화 유무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었다. 또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구조화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집단과 대화 주제유지 방법의 구조화 유무에 따른 차이 <표 7>를 제시하였다.

<표 7> 집단과 주제유지 방법의 구조화 유무에 따른 빈도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ource)	F-값	p-값
집단	.027	.870
구조화유무	.070	.791
집단*구조화유무	.046	.830

집단과 구조화 유무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었다. 또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구조화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을 언어연령으로 일치시킨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대화방법 중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주제유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과 차례지키기 유형에 따라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집단과 차례지키기 유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또한, 차례지키기 유형 중 인접발화, 비인접발화, 불명료발화로 나누어 발화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일반 아동보다 인접발화 빈도수가 많았으며, 비인접발화 빈도수는 적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불명료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화방법 중 차례지키기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인접발화 빈도수가 많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만 반응하는 주로 청자의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경우 청자와 화자의 역할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자나 화자 중 하나의 역할만 주로 한다고 보고한 Baltaxe(197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상대방과의 대화 시 먼저 말을 개시하는 발화는 거의 없으며, 상대방이 먼저 한 말과 관련하여 간단한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의 차례를 채워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집단과 주제유지 여부에 따라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집단과 주제유지 여부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아동의 주제유지 발화와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가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과 일반 아동 간 주제 유지 발화 빈도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더 많았다. 위 결과에 나와 있듯 자폐청소년의 주제유지 발화 빈도수가 많은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는 발화에만 단순하게 반응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폐 아동들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간단한 대답을 요구 받을 때 대화의 주제를 잘 유지한다고 보고한 Crucio & Paccia(198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일반 아동보다 주제 비유지 발화 빈도수가 더 많았다는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이 일반 아동보다 화제에서 벗어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성숙(2002)연구에서 일반 아동이 자폐 아동보다 주제를 유지하는 발화 빈도수가 더 많고, 주제유지를 하지 않는 발화 빈도수는 자폐 아동이 더 많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간혹 상대방의 대화와 관련이 없는 광고문 등의 자연적 반향어를 보여 주제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 대상자 가운데 한 아동은 연구자와의 대화 시 “맑은 피부, 상쾌한 하루”와 같은 문구를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선생님, 흰 말 하고 하얀 말 하고는 같은가요?”와 같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발화를 하였다. 이는 김영태(2002)의 연구에서 자폐 아동들은 언제 주제를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 혼동을 나타낸다고 한 것과 같이 주제를 바꾸어야 할 타이밍을 알지 못해 주제와 관련 없는 발화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과 주제유지 방법에 따라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집단과 주제유지 방법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아동의 주제유지 방법의 발화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일반 아동보다 새로운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발화 빈도수가 더 많았다. 이는 자폐 아동들이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보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조성숙(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 또한 자폐 아동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보다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조성숙(2002) 연구의 대상자가 아직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주로 새로운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나 ‘예/아니오’의 대답이 많았다. 또한 형식을 약간 변경하여 어른이 한 말을 반복하거나, 반향어와 같은 틀에 박힌 구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들이 대화를 유지할 때 반향어, 또는 강박관념적인 말이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Seltzer et al.(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이 새로운 정보를 더하지 않는 방법보다 적은 빈도수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연구 대상자에서 관찰된 사례를 보면, 연구자와 비구조화된 상황(찰흙 놀이)에서 대화를 할 때, “자동차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는 질문에, “자동차……자동차는 바퀴 4개 만들고, 창문 있고, 핸들 만들어요”라고 확장하여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말의 내용에 반대되는 정보를 말하는 빈도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대화방법에서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그리고 주제유지 방법을 구조화된 상황과 비구조화된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차례지키기, 주제유지 여부, 주제유지 방법 모두에서 집단과 구조화 유무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었다. 또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구조화 상황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시작하는 발화가 적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상대방이 한 말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들은 대화방법 중 차례지키기에서 주로 상대방의 말에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제유지를 하는 발화는 많으나, 대부분 간단한 대답을 요구받을 때 주제유지를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 시 주로 ‘예/아니오’나,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발화, 광고문 등의 반항어와 같은 대화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화용적 능력을 위한 언어중재에 있어, 대화방법의 언어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주제유지와 관련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대화방법 향상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대화방법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구어적인 측면 외에 눈맞춤, 제스처 등의 비구어적인 측면을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구어적인 측면을 배제한 구어적인 측면에 대한 대화방법만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구어적인 측면 외에 비구어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연스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추후 연구에서 또래 집단 간의 대화상황에 따른 대화방법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폐청소년들의 대화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성은 · 이윤경 (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말차례 주고받기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2(4), 662-675.
- 김은경 (2006).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폐 교육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자폐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1), 79-109.
- 양문봉 (2001). 자폐인의 유형 및 특성. 『장애인고용』, 42, 4-25.
- 이승복 (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 이효진 · 김영태 (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 대화의 말차례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6(2), 293-312.
- 조성숙 (2002). 언어발달 초기단계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대화방법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7(3), 55-76.
- 최유미 · 전병운 (2003). 정신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의 말 주고받기 특성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8(3), 82-96.
- 하영례 (2006). 고기능 자폐아 의사소통 결함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8(2), 122-136.
- 이춘재 · 성현란 · 송길연(공역) (1998). 『발달정신병리학: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현진 · 박영신 · 김혜리(공역) (2007). 『언어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정미(역) (2005). 『자폐 아동의 하기-보기-듣기 그리고 말하기』. 서울: 시그마 프레스.
- 이승복 · 이희란(공역) (2007). 『언어발달』. 서울: 시그마 프레스.
- Baltaxe, C. (1977). Pragmatic deficits in the language of autistic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 176-180.
- Curcio, F., & Paccia, J. (1987). Conversation with autistic children: Contingent relationship between features of adult input and children's response adequacy.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7, 81-31.
- Loveland, K. A., Landry, S. H., Hughes, S. O., Hall, S. K., & Mcevoy, R. E. (1988). Speech acts and the pragmatic deficits of autism.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1, 593-604.
- Loveland, K. A., Pearson, D. A., Ortegon, J., Kotoski, B. T., & Gibbs, M. C. (2001). Judgments

- of social appropriateness by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 4(3), 57-72.
- Seltzer, M. M., Shattuck, P., Abbeduto, L., & Greenberg, J. S. (2004). Trajector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utism.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10, 234-247.
- Owens, R. E. (2004).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Boston: Allyn & Bacon.
- Prutting, C. A., & Kirchner, D. M. (1987). A clinical appraisal of the pragmatic aspect of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105-119.
- Sack, H., Schegloff, E.,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Abstract>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 Focused on turn-taking and the topic maintenance method -

Yang, Jung-Yeun · Choi, Yaelin

Seoul Top Pediatric Psychiatry · Myongji University

This research compared a group of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ASD) to general children accordant with linguistic ages and observed Turn-taking, keeping, topic-sustenance, and methods for topic maintenance in conversation situations. Research targets were 10 adolescents with ASD and general children who fall into the age 6 and 3 months for linguistic age.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frequenc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roup and type of turn-taking, there were interactive effects between the group and the type of turn-taking. Adolescents with ASD showed more adjacent utterances and less non-adjacent utterances than general children.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frequenc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roup and type of keeping topic sustenance, there were interactive effects between the group and the type of keeping topic sustenance.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frequency of sustaining the topic was higher than the frequency not sustaining the topic for both groups.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frequenc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roup and the topic maintenance method, there were interactive effects between the group and the topic maintenance method. Fourth, the results of dividing the observing conversation methods into structured and non-structured situations and studying it there were no correlative action effects between the group and the structuralization in all of the observing conversation methods.

Key words : Autism Spectrum Disorder, Turn-taking, keeping topic-sustenance, topic maintenance method.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 연구

한송이·홍혜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John Alan Lee(1973)가 제시한 여섯 가지 사랑 유형(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유형, 자아존중감, 만족도, 신뢰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20~30세까지의 미혼남녀 314명이었고, 척도로는 사랑유형척도(LSA), 자아존중감척도, 만족도척도, 신뢰감척도 등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 분산분석, 카이제곱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랑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유형은 열정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났고,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유형은 유희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사랑유형마다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헌신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이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셋째, 사랑유형마다 이성 관계만족의 차이는 헌신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평균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실용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유희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이 평균이하 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랑유형마다 신뢰도차이는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파트너에게 높은 신뢰감을 느꼈고,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평균이하로 파트너에게 낮은 신뢰도감을 느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전제과정인 이성관계의 주요변인이 사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 등의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사랑유형,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hyhong@mju.ac.kr / 02-300-0899)

■ 게재 신청일 : 2010년 4월 14일 ■ 최종 수정일 : 2010년 5월 11일 ■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미 있는 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랑은 남녀 간의 가장 친밀하고 사적으로 보이는 관계를 형성해 준다. 사랑에 관한 논의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랑과 연애에 관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사랑과 호감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랑은 일상적으로 매우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현상이다. Berscheid & Walster(1974)의 대인관계 친밀감 연구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연인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꼽았으며 다른 인간관계인 친구, 가족 관계보다도 우선으로 함이 나타났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성 관계는 당사자에게 사랑, 관심,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헤어지는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김미재, 2005).

성인 미혼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성격의 이성을 경험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이것은 결국 배우자 선택의 기초과정이 된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을 결정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족과 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당사자 간의 사랑과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노익상, 2002). 이성교제 경험의 만족도는 결혼 이후의 생활이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양희, 문소영, 박정운, 2003) 배우자 선택과정으로서의 이성교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사랑을 어느 한 시기에만 관련된 주제로 국한시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사랑에 민감해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바로 사춘기 이후 성인으로 도달하는 성인전기일 것이다. 사랑은 성인전기 발달과업으로서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Erikson(1968)은 청년기 동안 낭만적 경험이 정체성과 친밀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동성 관계에서 발달된 친밀감은 이성과의 낭만적인 애정관계에서 한층 더 발달되면서 경험하는 사랑과 이별의 전 과정은 이후 배우자 선택의 기반이 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이성교제를 통한 사랑이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John Alan Lee(1973)가 제시한 여섯 가지 사랑 유형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성인전기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랑 유형을 알아보고 그 유형이 이성교제 시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도, 파트너와의 신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John Alan Lee(1973)가 제시한 여섯 가지 사랑 유형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미혼 대학생들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며, 이 유형들이 사회 인구학적 요인 및 교제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성차, 자아존중감, 만족도, 신뢰감 등의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관계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랑의 유형이론

사랑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사랑 자체가 복잡하고 문화적인 제약을 받으며, 감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분석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사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므로 연구자들은 사랑의 개념에 대한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Freud는 사랑을 좌절된 욕구로 보았고, Watson은 성적 자극에 민감한 부분을 피부로 자극할 때 생겨나는 본유적인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Centers는 사랑이란 보상을 주는 상호작용

이라 하였고, Rubin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행동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Bersheid & Walster(1974)도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문화나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들은 사랑을 심리적 정서의 차이에 따라 열애(passionate love)와 동료애(companionate love)로 구분하였다. 심리학자 Maslow(1954)는 결핍적 사랑(deficiency love)과 실존적 사랑(being love)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제시하였다. Peck은 사랑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해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사랑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고, 각 인간관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사랑의 의미가 개인의 성장 및 생활환경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Sternberg(1986)는 사랑의 행동과 경험들을 연구한 자료 및 여러 이론에 근거하여,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그리고 결정/헌신(decision/commitment)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구성 요소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여덟 가지 사랑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사랑이 아닌 것(nonlove)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없는 일상적인 대인관계 같은 경우이다. 두 번째는 호감(liking)유형으로 세 가지 요인 중에 친밀감만 있는 경우이다. 친구사이의 우전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도취성 사랑(infatuated love)으로 열정만 있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공허한 사랑(empty love)으로 결정/헌신 요소만 있는 경우이다. 여섯 번째는 동료애적인 사랑(companionate love)으로 친밀감과 결정/헌신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일곱 번째는, 열정과 결정/헌신 요소가 결합된 양태인 열빠진 사랑(fatuous love)으로 관계에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랑(consummate love)은 친밀감, 열정, 결정/헌신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다.

Rubin(1973)은 여러 개의 진술문에서 사랑을 반영하는 진술문과 호감을 반영하는 진술문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 발견을 기반으로 사랑의 척도(love scale)와 호감의 척도(liking scale)를 만들었다. 그의 호감진술문은 “나는 _____의 훌륭한 판단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와 같은 것이 있고 이 각 진술문은 9점 척도로 되어있다.

Bersheid & Walster(1974)는 사랑을 심리적 정서의 차이에 따라 열애(passionate love)와 동료애(companionate love)를 구분하였다. 사회학자인 John Alan Lee(1973)는 광범위한 면접과 자료 요약 기법(data reduction technique), 여러 문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랑을 색깔에 비유하여 사랑을 ‘기본색’과 ‘이차색’이라는 틀을 통해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는 사랑의 기본색을 열정적인 사랑(Eros), 유희적인 사랑(Ludus), 친구 같은 사랑(Storge)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조합에 따른 이차색으로 소유적인 사랑(Mania), 실용적인 사랑(Pragma), 헌

신적인 사랑(Agape) 세 가지로 구분하여 총 여섯 가지의 사랑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여섯 가지 사랑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열정적인 사랑(Eros)은 흔히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강한 정서적 감정이 특징이다. 이 유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상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첫 눈에 반해 버린다. 두 번째, 유희적인 사랑(Ludus)은 유희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이 유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일종의 게임(game-playing love)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에 빠지거나 헌신할 의사가 없는 정서가 자제된 사랑을 보여준다. 세 번째, 친구 같은 사랑(Storge)은 우애적 사랑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르익는 사랑을 의미한다.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신체적인 이상형이 없어 의도적으로 상대를 고르고 첫 눈에 반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사랑하게 되는, 지속적인 정에 근거한 사랑을 추구한다. 네 번째, 소유적인 사랑(Mania)은 두 개의 기본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과 유희적인 사랑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유적인 사랑으로 극도의 의존성과 강한 질투가 특징이다. 소유적인 사랑유형의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 항상 필요하고, 항상 상대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실용적인 사랑(Pragma)은 친구 같은 사랑과 유희적인 사랑이 결합한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이다. 친구 같은 사랑의 특징으로 인해 자기와 서로 어울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지닌 상대를 선호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유희적인 사랑의 특징을 활용해 적절한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사랑(Agape)은 열정적인 사랑과 친구 같은 사랑이 결합해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돌보아주며 용서하고 베풀어 주는 이타적 사랑이다. 의무적이며 베풀다는 의미에서 친구 같은 사랑의 사랑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한다.

John Alan Lee(1988)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유형의 사랑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각 사랑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단 한가지의 유형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특정한 사랑유형에서도 개인사에 따라 결코 완전히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John Alan Lee(1973)의 사랑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랑유형과 성(性)차

사랑을 지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을 보

면, 성역할 사회화 이론을 들 수 있다. 성역할 사회화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 태도 및 가치관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정옥분, 1998). 이 이론에 따르면,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성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아 그것을 내면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것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연인을 대하는 태도와 기대, 그리고 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Chodorow(1978)는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주로 계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애착, 정서적 유대를 통하여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반면, 남성은 자율성과 분리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여성은 분리 상황에서 그리고 남성은 정서적 유대의 상황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Rubin(1993)은 이러한 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는 성인기 이성간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애착을 발달시킨 여성은 남성보다 더 친밀감을 중요시 여기게 되며, 반면 남성은 자율성을 더 발달시켰기 때문에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을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사랑의 성차를 설명하는 생물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사랑의 행위들에는 자손의 재생산과 그에 관련된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산 능력이 없는 남성과 재생산 능력이 있는 여성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Buss & Barme, 1986). 사랑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Hendrick & Hendrick(1986)의 연구에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더 열정적이고 유희적인 사랑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실용적인 사랑이나 친구 같은 사랑, 또는 소유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Morrow, Clark & Brock(1995)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더 유희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반면 여성은 친구 같은 사랑, 실용적 사랑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들의 낭만적 사랑과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를 한 Brown(1993)은 연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12개의 요인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이 애정적 요인을 더 강조한 반면, 여성은 남성의 직업, 가문 교육수준과 친구 같고 동일한 취미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Lasswell & Hatkoff(1979)는 사랑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성의 많은 비율이 유희적인 사랑과 열정적인 사랑의 요인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약간 더 소유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실용적인 사랑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기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Lorr & Wunderlich, 1986), 관계

의 유지와는 긍정적 상관성이 나타나며(Hendrick & Hendrick, 1989), 관계의 만족과 일반적 및 사회적 자기 존중이 관련이 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Lin & Rusbelt, 1995). Maslow(1954)는 모든 인간은 자존감욕구를 주장하고 이것이 충족되면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 감정, 태도 등 여러 가지 자기지각의 총체이다. 자아개념의 발달은 1세경부터 나타나서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한다. 청소년 초기에는 자아중심성이 강하나 점차 감소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Lee(1973)는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열정적 사랑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높은 자아력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유적인 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소유적이고 의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에 외롭고 불만족하여, 필사적으로 연인을 구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Hendrick & Hendrick(1986)은 80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사랑 유형 연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열정적인 사랑이 분명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열정적인 사랑을 주요한 사랑유형으로 가지고 있었다. 한편, 소유적인 사랑과 자아감은 분명한 부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Mallandain & Davies(1994)는 120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열정적인 사랑과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소유적인 사랑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또한 자아존중감이 친구 같은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에 있어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478명의 한국 대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열정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홍대식, 1996). 이상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인 자아존중감과 사랑유형간의 관계를 보면, 열정적인 사랑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보이며, 소유적인 사랑은 부적상관을 보이며 나머지 사랑유형의 경우에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4. 사랑유형과 이성 관계만족도

관계 만족도는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Hendrik & Hendrik, 1998). Hendrik & Hendrik(1988)과 그의 동료들은 Lee의 여

첫 가지 사랑유형과 관계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를 하였는데, 사랑유형에 따라 관계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들의 예측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결과, 여섯 가지 사랑 유형 중 남성의 경우, 관계만족도 척도인 DAS(Dyadic Adjustment Scale)과 RAS(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둘 다에서 열정적인 사랑과 유희적인 사랑이 자존감과 함께 관계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고, 여성의 경우, DAS에 대하여는 열정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이 RAS에 대하여는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이 관계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이성 관계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 중 사랑요소나 사랑 유형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arver(1998)는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보다 큰 정서적 개입이 있을 때 관계 만족이 향상되며 이 분야의 이론과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친밀감이 관계 만족과 유지의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Yancey & Berglass(1991)는 140명의 대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사랑 유형과 인생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관계만족도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Hendrik & Hendrik, 1988)의 결과와는 다르게 헌신적인 사랑과 소유적인 사랑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을 대상으로 29세의 대학생들과 30세 이상인 두 집단을 비교하여 관계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Yancey & Eastman, 1995)에서는 헌신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Frazier & Estsrly(1990)는 LAS 점수와 Davis와 Todd가 개발한 RRF(Relationship Rating Form, 관계 평가 척도)으로 측정된 관계 특색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이 높을수록 관계 내 친밀감, 열정, 헌신,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유희적인 사랑은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갈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5. 사랑유형과 신뢰도

신뢰감도 관계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교제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의존 가능성(dependability) 그리고 신념(faith)의 세 가지 단계의 모델로 설명되어진다(Rempel, Holmes & Zanna, 1985). 첫 번째, 단계인 예측 가능성이란 상대방의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측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의존가능성이란 예측 가능성보다는 한 단계 더 발달된 것으로 이전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상대방과의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솔직히 노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앞의 두 단계의 신뢰감 요인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인 바로 신념이다.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1989)는 12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고독과 낮은 수준의 상호 신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사랑유형과 신뢰감에 대한 결론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인을 대상으로 사랑과 신뢰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을 보면, 연인들 간의 신뢰감이 사랑과 자기 노출의 깊이와 연관된다고 하였다(Larzelere & Huston, 1980).

Rempel, Holmes & Zanna(1985)도 47쌍의 미혼과 기혼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사랑과 신뢰감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며, 신뢰감이 애정관계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Hill, Rubin & Peplau(1976)은 신뢰감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여성이 신뢰감에 대해 남성보다 더 통합적인 관점을 지녀서 예측가능성, 의존가능성, 그리고 신념 등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랑유형과 신뢰감에서 Lee(1988)는 유희적인 사랑을 신뢰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랑유형으로 보았다. 이는 유희적인 사랑 소유자의 경우, 한사람에게 몰입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며 사랑하는 특징을 가져서 상대방이 자신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합하여 보면, 열정적인 사랑은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랑유형이지만 유희적인 사랑은 신뢰감을 낮추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성인전기인 20세부터 30세까지의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과 직장인 미혼남녀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표집 하였다. 총 350명 중 이성교제경험이 없는 대상을 제외시키고 성별의 차이를 알기 위해 남녀의 성비를 비슷하게 표집 한 총 31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 외에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기본정보를 알 수 있는 질문으로는 연령, 현재까지 교제경험 횟수, 평균 교제 기간, 이성파트너와 주간 만남 횟수, 헤어진 경험, 이별선언 주체를 포함한 교제 횟수를 포함하여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백분율
성별	남	156	49.6
	여	158	50.3
연령	20세	20	6.3
	21세	22	7.0
	22세	31	9.8
	23세	24	7.6
	24세	44	14.0
	25세	50	15.9
	26세	19	6.0
	27세	29	9.2
	28세	25	7.9
	29세	22	7.0
교제경험 횟수	30세	28	8.9
	1~2번	138	43.9
	3~4번	94	29.9
	5~6번	51	16.2
	7회 이상	31	9.8
평균교제 기간	1~5개월	81	25.4
	6~10개월	98	31.2
	11~15개월	64	20.3
	16~20개월	23	7.6
	21~25개월	21	6.6
	26개월 이상	28	8.9
주간만남횟수	0~1회	17	5.5
	2~3회	175	55.7
	4~5회	109	34.7
	6~7회	13	4.1

2. 연구 도구

가. 사랑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Hendrick과 Hendrick척도의 가장 최근 버전인 24문항 척도를 선택하여 이민재(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4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자신의 유형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5였고 하위유형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여섯 가지 사랑유형별 신뢰도 분석

항목	Cronbach's alpha	해당문항
열정적인 사랑	0.68	1번, 7번, 13번, 19번
유희적인 사랑	0.67	2번, 8번, 14번, 20번
친구 같은 사랑	0.65	3번, 9번, 15번, 21번
소유적인 사랑	0.63	4번, 10번, 16번, 22번
실용적인 사랑	0.69	5번, 11번, 17번, 23번
현신적인 사랑	0.78	6번, 12번, 18번, 24번

나. 자아존중감 척도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최은정(1998)이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4점 척도(1-정말 아니다, 2-아닌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정말 그렇다)로 되어있으며 3번, 5번, 8번, 9번, 10번은 역 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0이었다.

다. 이성 관계만족도 척도

이성 관계만족도는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을 이경성과 한덕웅(2005)이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다소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

우 그렇다)로 되어있으며 2번, 4번, 6번, 8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0.89였다.

라. 신뢰도 척도

Larzelere와 Huston(1980)이 개발한 척도로 교체하고 있는 연인이나, 약혼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남녀, 결혼한 부부 중 파트너의 착함과 정직을 서로 간에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8문항으로 리커트 7점 척도(1-정말로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그런 것 같다, 4-잘 모르겠다, 5-그렇지 않은 것 같다, 6-대체로 그렇지 않다, 7-정말로 그렇지 않다)로 되어있으며 3번, 4번, 5번, 7번, 8번은 역 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0.66이었다.

3. 연구 절차

이 연구 설문지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세부터 30세까지의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과 직장인 미혼남녀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표집 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으며 같은 형태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직접 설문지를 주고 설문이 끝난 후 수거하거나, E-mail 또는 메신저를 통해 수거하였다. 응답시간에는 1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회수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총 314명의 자료를 판별하여 선택한 후 SPSS/WIN program v.12.0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사랑 유형 척도는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위 범주가 사전에 구성되어있고, 사랑유형척도와 각 유형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다. 여섯 가지 사랑유형과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χ^2 검증을 하였다. 여섯 가지 사랑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이성 관계만족도, 파트너 신뢰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일원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범주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쓰는 이유는 약간의 평균의 차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쉽

게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강한 검증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IV. 연구결과

1. 사랑유형과 성(性)차

가설 1.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인미혼남녀의 사랑유형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 156명(49.37%)과 여자 158명(50.63%)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여 총 314명을 수집하여 빈도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랑유형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열정적인 사랑의 경우 남자 56.9%, 여자 43.1%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유희적인 사랑의 경우 남자 18.2%, 여자 81.8%로 여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친구 같은 사랑의 경우 남자 50.9%, 여자 49.1%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섯 가지 유형중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고, 소유적인 사랑의 경우 남자 36.8%, 여자 63.2%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실용적인 사랑의 경우 또한 남자 32.8%, 여자 67.2%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헌신적인 사랑의 경우 남자 78.8%, 여자 21.2%로 남자가 여자보다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로도 사랑유형별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랑유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표 3>, <표 4>와 같이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유형은 열정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났고,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유형은 유희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났다.

<표 3> 사랑유형과 성(性)차

사랑유형	성별	N	백분율(%)	진체백분율(%)
열정적인 사랑	남	33	56.9	18.47
	여	25	43.1	
	합계	58	100	
유희적인 사랑	남	4	18.2	7.01
	여	18	81.8	
	합계	22	100	

친구 같은 사랑	남	27	50.9	16.88
	여	26	49.1	
	합계	53	100	
소유적인 사랑	남	21	36.8	18.15
	여	36	63.2	
	합계	57	100	
실용적인 사랑	남	19	32.8	18.47
	여	39	67.2	
	합계	58	100	
헌신적인 사랑	남	52	78.8	21.02
	여	14	21.2	
	합계	66	100	
합계		314	100	100

〈표 4〉 사랑유형과 성별 χ^2 검증

		1	2	3	4	5	6	전체
남	빈도	33	4	27	21	19	52	156
	%	56.90	18.18	50.94	36.84	32.76	78.79	49.68
여	빈도	25	18	26	36	39	14	158
	%	43.10	81.82	49.06	63.16	67.24	21.21	50.32
전체	빈도	58	22	53	57	58	66	314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chi^2 = 42.74^{***}$$

*** $p < .001$

(1: 열정적인 사랑, 2: 유희적인 사랑, 3: 친구 같은 사랑, 4: 소유적인 사랑, 5: 실용적인 사랑, 6: 헌신적인 사랑)

2.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가설 2.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 마다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각 사랑유형 마다 $F(5,303)=4.16$,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점수인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유형 중 헌신적

인 사랑이 3.14점, 열정적인 사랑이 3.09점, 유희적인 사랑이 3.05점으로 척도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친구 같은 사랑은 2.99점, 소유적인 사랑은 2.97점, 실용적인 사랑은 2.85점으로 척도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이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의 미혼남녀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정리하면 <표 5>, <표 6>과 같이 헌신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이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표 5>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열정적인 사랑	58	3.09	0.40
유희적인 사랑	22	3.05	0.40
친구 같은 사랑	53	2.99	0.36
자아존중감			
소유적인 사랑	57	2.97	0.40
실용적인 사랑	58	2.85	0.39
헌신적인 사랑	66	3.14	0.37
합계	314	3.02	0.39

<표 6>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분산분석

	SS	df	MS	F	사후검증
집단-간	3.07	5	0.61	4.16***	
집단-내	44.72	303	0.15		1, 2, 6>3, 4, 5
합계	47.79	308			

*** $p < .001$

(1: 열정적인 사랑, 2: 유희적인 사랑, 3: 친구 같은 사랑, 4: 소유적인 사랑, 5: 실용적인 사랑, 6: 헌신적인 사랑)

3. 사랑유형과 이성 관계만족도

가설 3.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관계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 마다 이성 관계만족의 차이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이성 관계만족도는 각 사랑유형 마다 $F(5,302)=4.53$,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성 관계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인 7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유형 중

헌신적인 사랑이 5.5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꼈고, 열정적인 사랑이 5.66점, 실용적인 사랑이 5.20점, 친구 같은 사랑이 5.15점, 유희적인 사랑이 5.14점, 소유적인 사랑이 5.01점의 순서로 이성 관계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이 유희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보다 이성 관계만족도가 더 높았다.

정리하면 <표 7>, <표 8>과 같이 헌신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평균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실용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유희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이 평균이하 점으로 점차 낮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랑유형과 이성 관계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이성 관계만족도	열정적인 사랑	58	5.66
	유희적인 사랑	22	5.14
	친구 같은 사랑	53	5.15
	소유적인 사랑	57	5.01
	실용적인 사랑	58	5.20
	헌신적인 사랑	66	5.59
	합계	314	5.32

<표 8> 사랑유형과 이성 관계만족도 분산분석

	SS	df	MS	F	사후검증
집단-간	19.38	5	3.88	4.53***	
집단-내	258.58	302	0.86		1>2, 3, 4, 5 6>2, 3, 4
합계	277.96	307			

*** $p < .001$

(1: 열정적인 사랑, 2: 유희적인 사랑, 3: 친구 같은 사랑, 4: 소유적인 사랑, 5: 실용적인 사랑, 6: 헌신적인 사랑)

4. 사랑유형과 신뢰도

가설 4.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 마다 파트너 신뢰도차이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파트너 신뢰도는 각 사랑유형 마다 $F(5,303)=2.28, p<.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파트너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점수인 7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유형 중 열정적인 사랑이 4.93점, 헌신적인 사랑이 4.83점, 유희적인 사랑이 4.75점 친구 같은 사랑이 4.66점, 소유적인 사랑과 실용적인 사랑이 4.51점의 순으로 파트너에게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로는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이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표 9>, <표 10>과 같이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파트너에게 높은 신뢰감을 느꼈고,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평균이하로 파트너에게 낮은 신뢰도감을 느꼈다.

<표 9> 사랑유형과 신뢰의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열정적인 사랑	58	4.93	0.78
	유희적인 사랑	22	4.75	0.83
	친구 같은 사랑	53	4.66	1.00
	소유적인 사랑	57	4.51	0.80
	실용적인 사랑	58	4.51	0.73
	헌신적인 사랑	66	4.83	0.96
	합계	314	4.70	0.87

<표 10> 사랑유형과 신뢰도 분산분석

	SS	df	MS	F	사후검증
집단-간	8.39	5	1.68	2.28*	
집단-내	223.33	303	0.74		1, 6>4, 5
합계	231.72	308			

* $p < .05$

(1: 열정적인 사랑, 2: 유희적인 사랑, 3: 친구 같은 사랑, 4: 소유적인 사랑, 5: 실용적인 사랑, 6: 헌신적인 사랑)

V. 결론 및 논의

성인전기는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성과의 애정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이때의 친밀감형성을 통한 사랑경험은 성인기와 이후의 인생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서 이성과 경험하는 사랑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 선택의 기초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사랑을 본 연구는 사랑유형척도(LAS)를 바탕으로 성인전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가설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유형은 열정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났고,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유형은 유희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자의 경우 관계에 대해 매우 감정적이며, 몰입적으로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여자의 경우 연인관계에 대해 상당히 이성적이고 안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경향과, 또한 반대로 관계에 그다지 깊이 빠지지 않으면서 불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며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endrick & Hendrick(1986)과 Lasswell & Hatkoff(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자는 실용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자신의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관계를 끝낼 수도 있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감정적이고 이성 관계에 대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비교적 관계자체에 중점을 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 마다 자아존중감은 열정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이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의 미혼남녀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열정적인 사랑, 헌신적 사랑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Hendrick & Hendrick(1986)과 홍대식(199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랑을 유희로 보고 게임처럼 사랑하는 특성과, 사랑에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헌신적인 사랑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해본다.

가설 3.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관계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 마다 이성 관계만족도는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이 유희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보다 이성 관계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aver(1998)가 제안한 더 큰 정서적 개입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열정적인 사랑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적으로 베풀고 사랑의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갈등요소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갈등요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며, 상대방을 돌보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친구 같은 사랑이나 실용적인 사랑과 소유적인 사랑이 낮게 나온 것은 정에 근거한 안정적인 사랑이나,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랑과 강한 느낌을 수반하는 사랑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희적인 사랑은 사랑을 그저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현재의 파트너를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설 4. 미혼남녀들의 개인 사랑유형은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랑유형 마다 파트너 신뢰도차이는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이 소유적인 사랑, 실용적인 사랑에 속한 미혼남녀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Hendrick & Hendrick, 1986; Hill, Rubin & Peplau, 1976; Larzelere & Huston, 1980; Rempel, Holmes & Zanna, 1985)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열정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유희적인 사랑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행동패턴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사랑은 상대방과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그 사람에게 자신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노출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인전기는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성과의 애정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인전기에 이성교제는 후에 배우자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혼생활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이성교제 경험에서 낭만적 사랑의 유형과 발달적 특성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관계만족도, 파트너와 신뢰도의 관계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인미혼남녀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성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어 결국 배우자 선택의 기초과

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사랑유형이 성별과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Lee는 사랑유형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달단계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성교제나 배우자 선택에 사랑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랑유형이 시간에 영향을 받듯이 사회·문화, 지역, 나라 등 사랑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찾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한다면 관련 변인이 그들의 배우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하는데 있어 의사소통방법과 갈등해결 등의 상호작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재 (2005). 성인애착, 책임귀인과 이별 이후 성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문소영, 박정윤 (2003). 미혼남녀의 결혼생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7, 53-72
- 김중술 (2003).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익상 (2002) 한국 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 만족도 연구: 개인적, 환경적, 상호작용 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19, 163-184
- 이민재 (2001). 성인전기의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신뢰감 및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0).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 분석 - Jung의 심리유형론과 Lee의 사랑유형론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 137-153.
- 정옥분 (1988). 『청년 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효택 (1994). 사랑의 유형과 그 심리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2004). 『사랑학』. 교문사.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10, 81-110.
- Acker, M. & Davis, H. (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 : A Test of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21-50.
- Berscheid E. & Walster E (1974). A little bit about love. In T. L. Hou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New York Academy Press. 359-374.
- Brown, R. A. (1993). Romantic Love and Spouse Selection Criterria of Male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183-189.
- Carver, C. S. (1998). Resilience and thriving : Issues, models, and link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45-266.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growing from the experience :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61-574.
- Erikson, E.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een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razier, P. A. & Esterly, E. (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331-352.
- Grossman, M. & wood, W. (1993). Sex Differences in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 :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10-1022.
- Hendrick, C. & Hendrick, S. (1983). *Liking, Loving, and Relating*. Monterey, CA : Brooks/Cole.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 Hendrick, S. (1989). Research on Love :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89.
- Hendrick, C. & Hendrick, S. (1992). *Romantic Love*. CA : Sage.
- Hill, C T., Rubin, Z. & Peplau, L. A. (1976) Breakups Before Marriages : The End of 103 Affairs.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47-168.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Lazere, R. E. & Houston, T. L. (1980). The Dyadic Trust Scale : Toward Understanding Interpersonal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95-604.
- Lasswell, T. E. & Hatkoff, S (1979). Male-fema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onceptualizing Love. In M. Cook & G. Wilson(eds). *Love & Attachment : An International Conference* Pergamon Press : Oxford.
- Lee, J. A. (1973). *The Colors of Love : An Exploration of the Way of Loving*. Don Mills, Ontario : New Press.
- Lee, J. A. (1976). *Colors of Love*. Toronto : General.
- Lee, J. A. (1988). Love-styles. In R. Sternberg & M.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Lin, Y. H. & Rusbult, C. E. (1995). Commitment to Dating Relationships and Cross-sex Friendships in America and Chin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2, 7-26.
- Lorr, M. & Wunderlich, R. A. (1986). Two Objective Measures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8-23.
- Mallandain I. & Davies, M. F. (1994). Notes and Shorter Communications : The Colours of Love : Personality and Correlates of Love Styles. *Parson. Individ. Diff.* 17, 557-560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 McMillen, J. C., Zuravin, S & Rideout, G. (1995). Perceived benefit from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1037-1043.
- Meeks, B. S., & Hendrick, S. S., & Hendrick, C. (1998).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5, 755-773
- Morrow, G. D., Clark, E. M., & Brock, K. F. (1995). Individual and Partner Love Styles : Implications for the Quality of Romantic Involvem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2, 363-387.
- Neto, F (1991). Love Styles Among Portugues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 613-616.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95-112.
- Richardson, D. R., & Medvin N., Hammock. G. (1986). *Love styles, Romantic experience, and*

sensation seeking : A test of validit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94-512.

Sternberg, R. J. & Grajek S. (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12-329.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Yancey, G. & Berglass, S. (1991). Love Styles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view* 68, 883-890.

<Abstract>

**The Study of the singles' Love Styles related with their
Self-Esteem,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rust**

Han, Song-yi ·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Love starts to become more sensitive and interesting in the early days of adulthood, which is when the person is becoming an adult. The love that is experienced within this period with the opposite sex is very important since it doesn't just influence the individual's growth factors but it also gets connected and influences the choices they make in the future when choosing a spouse and after adulthood is totally reached, it will keep on giving out influences from it as well. By this, this research will use John Alan Lee's(1973) Theory of Love Types(Eros, Ludus, Storge, Mania, Pragma and Agape) as the basic background This research has collected its data using non-married male and females with their age ranging from the 20s and their 30s. We analyzed a total of 314 people, which brought out a similar sex ratio. For us to classify the types of love there is, we used the LAS scale, the self-esteem scale, satisfaction scale, satisfaction within relationships. The differences of self-estee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may be affected, depending on different methods.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males tended to show more eros, storge and agape types of love while females tended to show more ludus, mania and pragma types of love. Second, self-esteem numbers were bigger in agape, eros and ludus than in storge, mania and pragma. Third, agape and eros had an above average number in thei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s their having with pragma, storge, ludus and mania showing satisfactions that are lower than the average. Fourth, differences in the reliabilities in their relationships showed that eros, ludus and agape showed a higher reliability and storge, mania and pragma tended to be lower than the average.

Key words : Love Styles, Self-Esteem, Relationship Satisfaction, Trust.

Emotional Response to Relaxing Music

Yoo, Ga-eul

Myongji Institute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motional response to relaxing music, using two dimensional self-rating scales: activation scale (arousal-relaxed) and valence scale (pleasant-unpleasant). The effect of musical training and experience on the difference of emotional responses was also investigated. 15 music major and 15 non-music major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Before and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participants rated their emotional states on two bipolar sca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 and post-listening ratings on the activation scale,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on the valence scale. Comparison of data from music and non-music major groups indicated that both groups rated lower scores on the activation scale at post-experiment than at pre-experiment, indicating decrease in emotional arousal, relaxation. Regarding ratings on the valence scale, while music major participant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non-music majors exhibi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pleasantness.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hanges in the dimension of pleasantness-unpleasantness as well as levels of emotional relaxation may be affected while listening to relaxing music. Also, the effect of previous musical education and experience on emotional responses was indicated.

Key words: emotional response, relaxation, music listening

I. Introduction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music on emotion. Thos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although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showed a broad range of individual variability, certain musical elements generated generalized responses among listeners (Costa, Fine & Ricci Bitti, 2004; Juslin, 1997; Juslin & Sloboda, 2001; Madsen, 1997; Ritossa & Rickard, 2004). Researchers indicate that varying musical elements (i.e., changes in intervals, loudness, melody, pitch, rhythm, and tempo) convey different emotional meanings and those meanings are communicated between music providers and listeners (Juslin & Sloboda, 2001).

In music therapy literature, music for relaxation is one of the areas where relationship between qualities of music presented and generalized response to the music has repeatedly been reported. Some researchers argue that individual experiences and/or pre-established association with certain musical stimuli are the primary factor for inducing expected responses, relaxation (Davis & Thaut, 1989). Still, certain musical aspects have been found more effective in leading listeners to relaxation.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listeners report increases in relaxation and decreases in activation or arousal of emotion after listening to a softer and slower music compared to a louder and faster music (Wolfe, O'Connell & Waldon, 2002). Although the effect of relaxing music on psychological responses has repeatedly been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concerning a dimension of valence of emotion: pleasantness unpleasant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motional response to relaxing music, using two dimensional rating scale of activation and valence.

II. Review of Literature

Studies on emotional response to music have demonstrated that changes in physiological and/or cognitive responses occur after listening to music. Researchers who consider emotion as the result of perceptions of changes in our body measure physiological changes observed in listeners while they are listening to musical stimuli (Rickard, 2004). They have found that when

people listen to music, significant changes in autonomic and somatic responses occur, including changes in heart rate, blood pressure, respiration rate, and skin conductance. Bradely and Lang (2000) found that heart rate increased when people listened to pleasant sounds. Iwanaga and Moroki (1999) showed increase in heart rate of people who listened to excitative music. Significant increases in blood pressure and respiration rate were also observed in people while listening to excitative music (Iwanaga & Moroki, 1999). Listening to unpleasant sounds elicited larger magnitude of reflexive blinks, compared to pleasant sounds (Bradely & Lang, 2000). When people listen to music considered emotionally powerful,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kin conductance (Rickard, 2004).

Within the cognitive framework of emotion, emotional responses are operated by processes of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labeling of experienced emotions. Therefore, emotional responses are evidenced by self reports which represent individual interpretation of perceived emotion, rather than by reflexive physiological arousal (Juslin & Sloboda, 2001). Researchers measure emotional responses of listeners by asking them to express perceived emotion using adjective checklists, rating scales, or a free verbal format after listening to given musical stimulus (Sloboda, 2005).

Some researchers adapted both of the two frameworks in order to address limitations when relying solely on one theory (Juslin & Sloboda, 2001). They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hysiological and self reported responses to sounds (Bradely & Lang, 2000). In Iwanaga and Moroki's study (1999),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vigor and tension while listening to excitative music compared to while listening to sedative music. During the excitative music, increased blood pressure and higher respiration rates of participants were also recorded.

Many studies on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have attempted to understand and describe generalized responses to certain musical elements. In the literature, musical aspects, including intervals, loudness, melody, pitch, rhythm, and tempo, have repeatedly been associated with specific emotions in common. When asked to rate experienced emotions after listening to given musical excerpts, listeners reported that music in a faster tempo was perceived happy and pleasant, while a slower tempo was calm or relaxed (Davis & Thaut, 1989). Research also showed that listeners perceived loud and fast music as more energetic or tense compared to soft and slow music (Ilie & Thompson, 2006). Regular rhythmic patterns with little changes were

perceived as solemn, while flowing patterns with less consistent rhythmic ground were perceived as happy or sentimental (Hevner, 1937). Listeners tend to link consonant intervals including perfect fifth and octaves with more positive or neutral emotions, while they associate dissonant including augmented fourth with more negative, unstable, or tense emotions (Costa, Fine & Ricci Bitti, 2004). Major mode tended to be rated happy, compared to minor mode which was reported as sadness or anger (Costa, Fine & Ricci Bitti, 2004; Hevner, 1937).

Music therapy for relaxation is one of the areas where relationship between qualities of music presented and generalized response to the music has repeatedly been reported. In a study by Iwanaga and Moroki (1999), listeners reported that relaxation was elicited while listening to sedative music, and vigor and tension were felt during excitative music. Rickard (2004) propos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anxiety level and emotional responses as measured by scale ratings. When participants listened to music that they rated relaxing, they reported a decrease in anxiety. On the contrary, when they listened to music rated arousing, their anxiety levels increased significantly.

These previous studies have corrobo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use of music or music therapy for relaxation. Also, the primary use of relaxing music lies in causing decreases in activation and arousal of emotion. Still, aesthetic and emotional natures of music listening would also affect listeners. If changes in arousal of emotion are solely considered as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it could not provide of listeners' relatively active identif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perceived emotions: how much listeners perceive the given music attractive or satisfactory and how they value the music and/or the experience of music listening, which show the valance of experienced emotions (Ilie & Thompson, 2006; Russell, 1980). 'Serene' and 'depressed' represent the same degree of activation of emotion and, accordingly, without use of the dimension of the valance, two emotions could not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lie & Thompson,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was to examine the emotional responses to relaxing music using two dimensional rating scale of activation and valance.

III. Methods

1. Participan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0 college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Kansas: 15 music major students and 15 non music major students. Demographic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completed by each participant (See Table 1). The music major group consisted of females with a mean age of 22.8 years ($SD = 2.70$ years). The majors of participants of this group included Music Education, Music Therapy, and Piano Performance. They have an average of 16.2 years ($SD = 3.14$ years) of music experience and training, including being in a choir, a band or both, playing one or more musical instruments, and/or getting music lessons. Non music major group were 8 females and 7 males with a mean age of 22.47 years ($SD = 2.56$ years). They have an average of 5.13 years ($SD = 4.96$ years) of music experiences and training. The majors of participants of this group included Accounting, Business, Economics, International Relations, Sports Science, and Speci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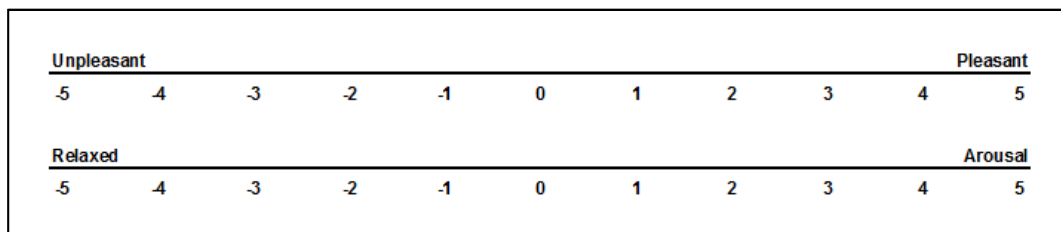
2. Setting and material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 quiet place within the university which the participants attended. The place was set up to meet the criteria of a controlled environment with minimization of distractible materials and equipment.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two musical excerpts were selected: Gymnopedie No. 1 by Satie and Sarabande from Suite No. 6 by Bach. These two excerpts have been indicated to induce relaxation in previous studies (Iwanaga, Ikeda & Iwaki, 1996; Rickard, 2004). Both of two music stimuli also met the criteria for the relaxation effect: a slow tempo between 60 and 72 beats per minute, which indicates a resting heart rate or below (Edwards, Eagle, Pennebaker & Tunks, 1991; Hevner, 1937), soft loudness less than 65 dB (Edwards et al., 1991; Rickard, 2004), little sudden changes in rhythm pattern and melodic contour (Costa, Fine & Ricci Bitti, 2004). One of the two experts was randomly determined and presented to each participant. Both of two music presentations were approximately 3 to 4 minute in duration.

Two independent rating scales were used as a response format in this study (See Figure 1). These rating scales adapted Russell's circumplex model of emotion. Russell's model (1980), which has greatly affected works of the dimensional approach to emotion, suggests that emotions are organized in a circular structure built on the two independent, bipolar dimensions of activation and valence. As following the framework of Russell's model, unpleasant was at the left extreme and pleasant was at the right extreme on a bipolar scale for valence. On the other bipolar scale for activation, relaxed was at the left extreme and arousal was at the right extreme. However, perceived emotions were rated on these two independent 11-point scales, rather than placing the emotions on a circle in a two dimensional bipolar space as in Russell's original work.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Music major	Non-music major
Sex (<i>n</i>)		
Female	15	8
Male	0	7
Age (<i>years</i>)		
<i>M (SD)</i>	22.8 (2.7)	22.47 (2.56)
Musical experience		
<i>M (SD)</i>	16.2 (3.14)	5.13 (4.96)



〈Figure 1〉 Examples of the two bipolar scales of valence and activation

3. Procedure

Each student participated in an individual experimental session. Participants filled out a consent form and a questionnaire asking their dem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years of musical experiences and training. Participants were then instructed on how to rate the judgment of emotional response on the scale provided.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ir emotional states before listening to the music presented. After listening to music for approximately 3 to 4 minute, they also rated their emotional states on the same scales used before listening.

IV. Results

In this study, participants rated activation and valence of perceived emotions before and after listening to given relaxing music. The participants' ratings on the 11-point scales (-5 to 5) for data analysis were collected. A paired sample t test showed that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 and post-experiment ratings on the activation scale (i.e., arousal-relaxation scale), $t(29) = 2.47, p < .05$. Comparison of the mean ratings before and after the listening session showed that lower ratings on the activation scale (i.e., arousal-relaxation) were made at post-experiment ($M = 0, SD = 3.20$) than at pre-experiment ($M = 1.33, SD = 1.92$) (see Table 2). For the valence scale (i.e., pleasant-unpleasant scale), a paired sample t test was also performed to examine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at pre- and post-experiment dat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atings at pre- and post-listening of relaxing music, $t(29) = 2.4, p < .05$. The mean of ratings on the scale decreased at post-experiment ($M = .27, SD = 2.60$), compared to at pre-experiment ($M = 1.43, SD = 2.24$) (see Table 3).

To examine if the extent of exposure to music and musical experiences would affect emotional response, the difference in scale ratings between two groups of music major and non-music major participants was compared. On the activation scale, both groups showed lower ratings at post-experiment than pre-experiment. For the music major group, the mean of ratings on the scale at post-experiment was lower ($M = 1.33, SD = 3.18$), compared to pre-experiment

($M = 1.60$, $SD = 1.92$). The non-music major participants also rated decreased scores at post-experiment ($M = 1.33$, $SD = 2.69$) than at pre-experiment ($M = 1.07$, $SD = 1.94$). Performed paired sample t tes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ratings between pre- and post-listen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music major group, $t(29) = .36$, $p > .05$, while the non-music major grou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atings, $t(29) = 3.45$, $p < .01$ (see Table 4).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also examined regarding ratings on the valence scale. The music major participants showed increased ratings at post-listening ($M = 1.53$, $SD = 2.45$), compared to pre-listening ($M = 1.27$, $SD = 2.58$). For the non-music major participants, lower ratings were made at post-experiment ($M = .10$, $SD = 2.14$), compared to pre-experiment ($M = .33$, $SD = 2.13$).

Paired sample t tests were performed to examine if these changes in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for the music major group, $t(29) = .77$, $p > .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 and post-experiment ratings for the non-music major group, $t(29) = 2.17$, $p < .05$ (see Table 5).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ow a person evaluates the content of the perceived emotion (i.e., valence of emotion) may vary depending on his or her musical experiences and training. People with considerable musical experiences may feel no changes in pleasantness of emotion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On the contrary, people with less musical training may feel less pleasant while listening to the same musical stimulus.

<Table 2>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experiment ratings on the activation scale

Pre		Post		Mean difference		$t(29)$	p
M	SD	M	SD	M	SD		
1.33	(1.92)	0	(3.20)	1.33	(2.95)	2.47	.02*

* $p < .05$

<Table 3>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experiment ratings on the valence scale

Pre		Post		Mean difference		$t(29)$	p
M	SD	M	SD	M	SD		
1.43	(2.24)	.27	(2.60)	1.17	(2.67)	2.40	.02*

* $p < .05$

〈Table 4〉 Pre and post experiment ratings on the activation scale: Music and non music majors

Group	Pre		Post		Mean difference		<i>t</i> (29)	<i>p</i>
	<i>M</i>	<i>SD</i>	<i>M</i>	<i>SD</i>	<i>M</i>	<i>SD</i>		
Music major	1.60	(1.92)	1.33	(3.18)	.27	(2.89)	.36	.73
Non-music major	1.07	(1.94)	-1.33	(2.69)	2.40	(2.69)	3.45	.004**

** *p* < .01

〈Table 5〉 Pre and post experiment ratings on the valence scale: Music and non music majors

Group	Pre		Post		Mean difference		<i>t</i> (29)	<i>p</i>
	<i>M</i>	<i>SD</i>	<i>M</i>	<i>SD</i>	<i>M</i>	<i>SD</i>		
Music major	1.27	(2.58)	1.53	(2.45)	-.27	(1.34)	-.77	.45
Non-music major	.33	(2.13)	-.10	(2.14)	1.33	(2.38)	2.17	.048*

* *p* < .05

V. Discussion

Focusing on the content and extent of stimulated emotion, changes in emotional responses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a paired sample *t* test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experiment ratings on the activation scale. The mean of ratings on the scale was lower at post experiment than at pre experiment. Considering that arousal was at positive end on the scale, while relaxation was at negative end, the result indicates that people may get more relaxed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than before listening. It corroborated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relaxing music decreased the level of emotional activation (Iwanaga & Moroki, 1999; Rickard, 2004). On the valence scale,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experiment ratings. The mean of ratings was lower at post experiment than at pre experiment; the scores moved toward the unpleasant end on the scale after listening to music. It indicates that listeners might tend to label experienced emotion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as more unpleasant, rather than as more pleasant.

Comparison of two groups in terms of ratings scores on the given two scales yielded

interesting results. On the activation scale, both music and non music major groups rated lowered scores at post-experiment, indicating that they might feel more relaxed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It is noteworthy that the observed decrease in activation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non-music major students, not for music major students. Th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sults may be made with the review of written comments that the participants made. Six music major participants described musical elements as contributing factors to their emotional response; the factors included slow tempo, soft loudness, narrowly ranged melodic lines, simplicity of texture, and instrumentation (i.e., piano solo). On the other hand, only one of the non music major participants pointed out a musical element, which was a slow tempo. Instead, four of non music major students stated that they felt relaxed because they listened to music without doing stressful things. One of them also said that listening to the provided music relieved his or her stress. These results imply that music major students might more tend to evaluate or analyze musical stimuli during listening, so they would not be relaxed as much as non music major students.

Previous findings supported this listening tendency of musicians. A study by Gfeller and Coffman (1991) found that trained musician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in affective responses when listening to tonal and atonal music, compared to non musicians who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responses depending on the style of presented music. They indicated that previous training and music experiences might lead musicians to process analytically music information, being, accordingly, less affected by emotional power of music.

On the valence scale, the music major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atings after listening, while the non music major group exhibi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pleasantness of emo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laxing music might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emotional valence of the music major group. On the contrary, the non music major group might perceive experienced emotion after listening to relaxation music as more unpleasant. Review of written comments gathered from some participants provided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sults. While music major participants made comments only about the musical elements as mentioned before, some of non music major participants described about what might affect the valence of their perceived emotions. Two of non music majors who rated their emotional response more unpleasant after listening stated that music evoked gloomy or sad emotions. Two other participants mentioned that music reminded them of a scene from a sad movie. It indicates that

non music majors might more tend to experience sadness along with relaxation after listening to given music during this study, while music majors might feel few changes in emotional responses.

Some findings in the literature were comparable to the results from this study. Madsen and Fredrickson (1993) investigated how musicians and non musicians perceived tension in music. They found that although both group perceived a similar pattern of tension and release while listening to the same music, the degree of the reported tension changes in a narrower range with musicians than with non musicians. Fredrickson (1995) also demonstrated that less variable changes in perceived tension and aesthetic responses were observed with musicians, compared to non musicians. These studies indicate that musicians might show lesser levels of emotional responses than non musicians, possibly affected by their tendency to base their responses on a broader range of musical information and previous training or music experiences.

This study showed interesting results that make it promising to examine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in further studies. Consideration of emotional valence provided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observed responses that uni 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emotional responses might fail to notice. In this study, although both groups showed considerable increases in relaxation after listening to relaxing music, there was a difference in how they perceived emotion evoked by listening: pleasant or unpleasant. For example, some participants considered gloomy or sentimental emotions unpleasant while they reported to get relaxed at the same time. To validate the criteria of desirable relaxation, solely relying on levels of perceived relaxation would not be sufficient for some listeners.

Although this study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f emotional response to relaxing music, the results should be applied and generalized with caution. Further study should include larger sample sizes to attain more reliable results. Individual variability should be also taken into account when designing further studies as well as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this study could not distinguish music major completely from non music major participants. Although the mean year of music experiences was obviously greater for music major ($M = 16.2$ years) than for non music major participants ($M = 5.14$ years), nine of the non music majors have more than nine years of musical experiences. Inclusion of people with little musical background as a control group will provide more critical information about both music and non major participants' responses.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failure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participants' pre established association with the used musical stimuli. Some of the participants mentioned that music reminded them of a scene from the movie in which plays the same music used during experiment. In this case, it is hard to say that their emotional response might be completely attributed to presented music itself.

In summ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motional contents as well as activation levels would be affected with the use of relaxing music. Despite its limitations, this study was a successful initial trial toward showing that emotional responses to relaxing music should be considered i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findings in this study also suggest some useful considerations when selecting music for the purpose of relaxation in music therapy settings. In accomplishing the desired goal, relaxation, it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to consider relationship between relaxation and pleasantness levels, the effect of musical experiences on emotional responses, and possible contributing factors to emotional responses.

References

- Bradely, M. M., & Lang, P. J. (2000). Affective reactions to acoustic stimuli. *Psychophysiology*, 37(2), 204-215.
- Costa, M., Fine, P., & Ricci Bitti, P. E. (2004). Interval distributions, mode, and tonal strength of melodies as predictors of perceived emotion. *Music Perception*, 22, 1-14.
- Davis, W. B. & Thaut, M. H. (1989). The influence of preferred relaxing music on measures of state anxiety, relaxation, and physiological responses. *Journal of Music Therapy*, 26(4), 168-187.
- Edwards, C., Eagle, C., Pennebaker, J., & Tunks, T. (1991). Relationships among elements of music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listeners. In C. D. Maranto (Ed.), *Applications of music in medicine* (pp. 41-47).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 Fredrickson, W. E. (1995). A comparison of perceived musical tension and aesthetic response.

- Psychology of Music*, 23, 81-87.
- Gfeller, K., & Coffman, D. D. (1991). An investigation of emotional response of trained musicians to verbal and music information. *Psychomusicology*, 10, 31-48.
- Hevner, K. (1937). The affective value of pitch and tempo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9(4), 621-630.
- Ilie, G., & Thompson, W. F. (2006). A comparison of acoustic cues in music and speech for three dimensions of affect, *Music Perception*, 23(4), 319-330.
- Iwanaga, M., Ikeda, M., & Iwaki, T. (1996). The effects of repetitive exposure to music on subjectiv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Journal of Music Therapy*, 33(3), 219-230.
- Iwanaga, M., & Moroki, Y. (1999). Subjectiv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music stimuli controlled over activity and preference. *Journal of Music Therapy*, 36, 26-38.
- Juslin, P. N. (1997). Can results from studies of perceived expression in musical performances be generalized across response format? *Psychomusicology*, 16, 77-101.
- Juslin, P. N., & Sloboda, J. A. (Eds.). (2001). *Music and emo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dsen, C. K. (1997).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as measured by the two dimensional CRDI, *Journal of Music Therapy*, 34(3), 187-199.
- Madsen, C. K., & Fredrickson, W. E. (1993). The experience of musical tension: A replication of Nielsen's research using the continuous response digital interface. *Journal of Music Therapy*, 30, 46-63.
- Rickard, N. S. (2004). Intense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a test of the physiological arousal hypothesis. *Psychology of Music*, 32(4), 371-388.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61-1178.
- Sloboda, J. A. (2005). *Exploring the musical mind: Cognition, emotion, ability, fun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e, D. E., O'Connell, A. S., & Waldon, E. G. (2002). Music for relaxation: A comparison of musicians and nonmusicians on ratings of selected musical recordings. *Journal of Music Therapy*, 39, 40-55.

<국문 초록>

긴장 이완을 위한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 연구

유가을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긴장 이완을 위한 음악을 감상할 때 일어나는 정서 반응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는 음악 전공 대학생 15명과 비음악 전공 대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로 음악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인지되는 정서 상태를 이차원적인 정서 척도 (각성-조림의 활성화 정도 척도와 유쾌-불쾌의 정서 유인가 척도)에 표시하도록 해, 그 차이가 어떤지 살펴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의 정서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활성화 정도 척도에서는 평균값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됨이 관찰되었지만, 유인가 척도에서는 그 반응 변화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룹간 평가 내용을 비교해보았을 때, 활성화 정도 척도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음악 감상 후 정서의 활성화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즉 정서 반응에 있어 긴장 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한 것이다. 반면 정서가 척도에서는 두 그룹이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음악 전공자 그룹의 경우 음악 감상 후 유인가 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음악 전공자 그룹은 감소된 유쾌의 유인가를 보고했고 그 감소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긴장 이완을 위한 음악이 제공되었을 때 긴장 이완의 정도뿐만 아니라 유쾌-불쾌의 정서 유인가 역시 영향을 받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전 음악 경험이나 음악 교육에 따라 정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이 관찰되어, 음악 치료를 위한 음악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다양한 특징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이루어져야함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 정서 반응, 긴장 이완, 음악 치료

공무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명숙·홍혜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천안지역 공무원 318명을 대상으로 상사동료부하와의 대인관계스트레스척도, 스트레스대처유형척도, 직무만족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으로는 t 검정, F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남성이 도전적 대처유형을 보이고 직무환경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동료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완화와 회피적 대처유형을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환경, 보수, 승진에 대한 만족을 보였다.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동료, 부하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고 정서완화와 회피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직무환경과 승진에 대한 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부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회피적 대처를 보이고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직무만족은 직무자체, 직무환경, 승진에서 도전적 대처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 직종에 있어서도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승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도전적 대처를 높게 사용하는 점을 밝혔고,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업무효율향상을 위해 직무환경 개선과 대인관계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의의를 둔다.

핵심어 : 공무원, 대인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형, 직무만족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hyhong@mju.ac.kr / 02-300-0899)

■ 게재 신청일 : 2010년 4월 18일 ■ 최종 수정일 : 2010년 5월 13일 ■ 게재 확정일 : 2010년 5월 1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MF사태 이후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정년보장 등의 근무안정감으로 인하여 그 어느 직군보다 선호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요받고 부패방지 및 청렴 등의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을 요구받는 업무의 특성상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원인들도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조정하는데 있어 공무원은 과거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탁진국·윤혜진, 2002).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공조직에서는 전통적 조직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선진 민간기법의 도입과 성과체제의 구축은 조직간 및 구성원간의 경쟁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박기관, 2008).

2008년 총 조사 통계결과로 살펴본 공직사회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현황은 2008년 전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1.1세로 2003년(40.5세)와 비교하여 0.6세 증가하였으며, 인력구성을 보면 40대가 305,984명(3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32.8%), 50대 이상(20.4%), 20대 이하(11.9%)순으로 나타나 인력구성의 장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6%로 2003년(34.2%)대비 6.4%가 증가하여 공무원 직종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년화 추세와 여성비율 증가는 공무원 사회의 대인관계와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무원의 채용, 휴직, 승진소요연수 등 임용분야를 살펴보면, 최초임용계급 구성 비율이 68.8%로 가장 높은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3.8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어(행정안전부, 2008년 공무원총조사) 승진급과 관련하여 치열한 경쟁으로 공무원 직종의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과 관련되어 다른 직군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 정부조직의 인사평가제도는 전통적인 구도에서 개인을 중심에 두고 관련부문의 상급자, 동료, 부하직원 및 고객 등 다수에 의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도 평가자에 포함되기도 한다(권세용, 2004). 더 나은 인사고과를 받기 위하여 성원들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상급자들이 부하를 통솔하는데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사

기저하와 이직충동으로 이어진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갈등은 중요한 직무스트레스임에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태웅, 1999).

이러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과 근로자 개인의 대처행동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대처행동 유형에 따라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Lazarus & Folkman, 1984).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처행동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중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직무만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둘째, 공무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및 직무만족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셋째, 공무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

넷째, 공무원의 대처유형과 직무만족은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가 ?

Ⅱ. 이론적 배경

조직의 내·외적 요인들과 근로자의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Hackman & Oldham(1976)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직장 내에서의 구성원들이 형성할 수 있는 동료와 상사로 대표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대인관계가 동기부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Cooper & Marshall(1978, 1986)은 조직 구성원들간의 대인관계의 질은 개인 및 조직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대인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해 보면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부분은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서 완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상사와 동료가 주는 사회적 지원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부분은 직무스트레스로서

직무만족과 조직전념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이정현, 2005).

Cooper & Marshall(1986)은 부하와 상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부하들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정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의 불안정성, 부하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결여정도, 상사의 선호와 상반되는 행동의 빈도 등으로 측정된다고 하였으며 상사의 권한과 역할 침해로 인한 갈등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 관계를 보면 서로 상호간의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동료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있다. Matteson & Ivancevich(1982)는 동료 간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로 인한 업무성과와 업무추진의 방해정도, 자신과 동료간의 지원이나 협조 부족, 직무수행에 관련된 정보교류 정도, 과다경쟁으로 인한 동료간의 갈등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 동료 및 상사, 부하와의 단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문제가 구성원들의 정신적 고갈에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갈등과 좌절감 등의 중대한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Gaines & Jermier, 1983).

인간은 환경 내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고통이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방어 반응을 대처라고 한다(Folkman & Lazarus, 1984).

Lazarus(198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서에 초점을 둔 대처유형은 해롭거나, 위협이 되거나, 환경상태를 저해하는 것을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대처유형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대처방식의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 대처방식의 능동성과 수동을 근거로 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외에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 등이 있다(오숙희, 2006). 흔히 많은 연구들이 정서 중심적 대처반응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이 더 효과적이고 심리적 적응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Havlovic & Keenan(1995)은 적극적 대처양식이 소극적 대처양식보다 적응적이고, 통제관련 대처양식이 탈출관련 대처양식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보았다. Folkman(1984)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직면적 대처, 자기통제, 책임감 수용, 회피, 계획적인 문제해결, 거리두기 대처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우(1994)는 Lazarus & Folkman(1985)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에 기초하여 도전적 대처(적극적, 전략적, 긍정적), 정서 완화적 대처(자기격려, 긴장완화, 소망적 사고), 회피적 대처(자기비난, 일탈행동, 사회적지지 추구)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김현정(2006)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내재화방법과 회피방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대처행동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정복(2006)은 초등교사의 성격유형, 대처방식,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분석에서 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도전적 대처방식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도전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처유형은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유형에 따라서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그 조직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강소량, 2008). 직무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만이 아니고 생활의 다차원에 걸친 사회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김현정, 2006).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의 차원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정도는 조직운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면 조직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에 대해 불만족으로 직무환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임상민, 2006).

최근 공공부문의 공무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Emmert & Taher(1992)은 전문직공무원과 기능 및 고용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수준을 조사하였다. 전문직공무원이 기능 및 고용직 공무원에 못지않게 보수, 성장기회, 직무직위, 고객과 동료 간의 상호작용 등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직무만족이라는 변수는 직무자체에 대한 몰입, 작업환경,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환류, 공무원내부육구의 성취 등 다양하게 설명된다(송건섭, 2001).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네 가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요인으로 공무원의 연령과 근무연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Hunt(1975)가 발표한 개인적 특성 중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초기일수록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임상민(2006)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령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장년화 추세의 공무원 직무환경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직무환경 중 보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공무원의 보수가 동기유발과 직무수행을 향상시키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임상민, 2006)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 승진으로 대표되는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선정하였는데 승진에 대한 욕구는 심리적 성장, 더 많은 보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며(이윤자, 2003), 타 직종에 비하여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직종에서도 승진에 대한 욕구와 승진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는데, 동료 및 상하간의 인간관계, 의사소통,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도 등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소량, 2008). 동질의식을 느낀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동료 간, 상하 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와 공무원 직종의 대인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천안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300명, 경기지역의 공무원 51명을 대상으로 2009년 2월과 4, 5월에 천안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방문 및 담당자와의 전화설명을 마친 후 설문지 배포를 실시하였다. 총 351부의 배포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진 3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18부(90.6%)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대상 318명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구 분		N	%
성 별	남성	211	66.4
	여성	107	33.6
연 령	20대	40	12.6
	30대	133	41.8
	40대	107	33.6
	50대	38	11.9
학 력	고졸 이하	38	11.9
	전문대졸	70	22.0
	대졸	202	63.5
	대학원 이상	8	2.5
결 혼	기혼	232	73.0
	미혼	86	27.0

근무기간	1년 미만	27	8.5
	1-3년 미만	31	9.7
	3-5년 미만	37	11.6
	5-7년 미만	23	7.2
	7-10년 미만	31	9.7
	10년 이상	169	53.1
소 속	시, 구 본청	256	80.5
	사업소	62	19.5
직 급	5급	12	3.8
	6급	52	16.4
	7급	124	39.0
	8급	56	17.6
	9급	63	19.8
	10급	11	3.5
직 종	행정직	132	41.5
	기능직	33	10.4
	시설직	117	36.8
	별정직	3	.9
	기타	33	10.4
합 계		318	100.0

2. 측정도구

가.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상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항목은 Barnett & Brennan(1997), 부하와의 관계 측정항목은 탁계관(2009)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동료와의 관계 측정 항목은 McAlister(1995)와 Dunham(1984)의 척도를 김태웅(2000)이 수정 보완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상사와 동료의 부정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상사를 측정하는 항목 1개와 동료를 측정하는 항목1개는 역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상사에 대한 항목이 Cronbach's α .91, 동료에 대한 항목이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문항은 총 15문항이고 이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표 2>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변 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 사	1~5(2*)	5	.82
	동 료	6~10(7*)	5	.82
	부 하	11~15	5	.80
	전 체	1 ~15	15	.85

주) *표시된 항목은 역문항임.

나. 스트레스 대처유형 척도

스트레스 대처유형 척도는 Folkman &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의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개정판을 토대로 수정보완 및 정리한 임용우(1994)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간 Cronbach's α .74이다. 문항은 총 4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처방식에는 도전적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회피적 대처 방식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유형의 Cronbach's α 는 <표 3>과 같다.

<표 3> 스트레스 대처유형 척도의 문항구성

변 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스트레스 대처유형	도전적 대처	3, 4, 5, 6, 12, 15, 18, 25, 30, 31, 33, 34, 35, 40, 45	15	.86
	정서 완화적 대처	1, 2, 7, 11, 13, 16, 19, 20, 21, 22, 23, 26, 27, 29, 36, 37, 38, 39, 41, 42	20	.78
	회피적 대처	8, 9, 10, 14, 17, 24, 28, 32, 43, 44	10	.67
	전 체	1 ~ 45	45	.87

다. 직무만족 척도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많은 척도 중 1969년 Smith, Kendall, Hulin에 의해 개발된 JDI척도를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한 신은경(2000)의 설문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만족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전체문항의 하위유형 Cronbach's α 는 <표 4>와 같다.

<표 4> 직무만족 척도의 문항구성

번 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직무만족	직무자체	1~6	6	.63
	직무환경	7~15	9	.81
	보 수	16~18	3	.81
	승 진	19~20	2	.87
	전 체	1 ~ 20	20	.84

3. 연구절차

사전에 전화통화 및 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실시방법을 숙지 받은 응답대상 공무원에게 10일에 걸쳐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공무원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 31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그리고 직무만족의 차이를 t -검증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 사후검증(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그리고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분석, 셋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가설은 유의 수준 $p < .05$ 이하에서 검증한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변인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분석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하위요인 중 도전적 대처의 ‘남성’ 평균은 50.54($SD=7.98$), ‘여성’ 평균은 48.10($SD=7.85$), t 값은 2.58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환경의 ‘남성’ 평균은 28.72($SD=4.97$), ‘여성’ 평균은 28.49($SD=4.29$), t 값은 .42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만족 전체의 ‘남성’ 평균은 61.10($SD=10.15$), ‘여성’ 평균은 58.66($SD=8.73$), t 값은 2.12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검증

()는 표준편차

구 분		남성(N=211)	여성(N=107)	t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 사	12.31(3.01)	12.62(3.61)	-0.76
	동 료	11.50(3.04)	12.04(2.63)	-1.56
	부 하	11.92(3.22)	12.64(2.98)	-1.93
스트레스 대처유형	도전적 대처	50.54(7.98)	48.10(7.85)	2.58. **
	정서 완화적 대처	57.31(7.73)	57.36(8.16)	-0.06
	회피적 대처	27.75(4.49)	28.01(4.05)	-0.51
직무만족	직무자체	19.48(4.45)	18.09(3.68)	2.78
	직무환경	28.72(4.97)	28.49(4.29)	.42 **
	보 수	7.73(2.44)	7.19(2.10)	1.94
	승 진	5.17(1.79)	4.90(1.45)	1.46
	직무만족 전체	61.10(10.15)	58.66(8.73)	2.12 *

* $p<.05$, ** $p<.01$

공무원의 연령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변인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령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검증

()는 표준편차

구 분	20대 ^a	30대 ^b	40대 ^c	50대 ^d	F값	사후 검증	
	N=40	N=133	N=107	N=38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 사	11.85 (3.79)	12.50 (3.19)	12.87 (3.18)	11.39 (2.52)	2.46	
	동 료	12.90 (3.69)	11.95 (2.85)	11.08 (2.60)	11.13 (2.63)	4.81 **	a>c
	부 하	11.35 (3.66)	12.44 (3.46)	12.47 (2.73)	11.21 (2.28)	2.76 *	b, c>a
스트레스 대처유형	도전적 대처	48.43 (7.70)	48.98 (7.53)	49.99 (7.64)	52.89 (10.16)	2.81 *	d>a, b, c
	정서 완화적 대처	59.68 (6.97)	57.83 (7.89)	55.75 (7.39)	57.55 (9.28)	2.87 *	a>c
	회피적 대처	29.00 (3.64)	28.38 (4.31)	27.11 (3.71)	26.76 (6.06)	3.49 *	a>c, d
직무만족	직무자체	17.80 (3.76)	18.85 (3.47)	19.09 (5.08)	20.66 (4.32)	3.12 *	d>a, b, c
	직무환경	28.05 (3.90)	28.58 (4.41)	27.81 (4.50)	31.82 (6.10)	7.38 ***	d>a, b, c
	보 수	7.15 (2.26)	7.64 (2.28)	7.26 (2.19)	8.42 (2.86)	2.79 *	d>a, c
	승 진	5.28 (1.50)	5.20 (1.60)	4.70 (1.63)	5.53 (2.11)	3.14	d>c
	직무만족 전체	58.28 (8.85)	60.26 (8.86)	58.87 (9.18)	66.42 (12.71)	6.68 ***	d>a, b, c

* $p<.05$, ** $p<.01$, ***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동료 스트레스는 연령이 20대는 12.90($SD=3.69$), 30대는 11.95($SD=2.85$), 40대는 11.08($SD=2.60$), 50대 이상은 11.13($SD=2.63$)로 나타나 $F=4.81$ 로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동료 스트레스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유형 하위요인 중 도전적 대처는 연령이 20대는 48.43($SD=7.70$), 30대는 48.98($SD=7.53$), 40대는 49.99($SD=7.64$), 50대 이상은 52.89($SD=10.16$)로 나타나 $F=2.81$ 으로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완화적 대처는 연령이 20대는 59.68(SD=6.97), 30대는 57.83(SD=7.89), 40대는 55.75(SD=7.39), 50대 이상은 57.55(SD=9.28)로 나타나 $F=2.87$ 로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는 연령이 20대는 29.00(SD=3.64), 30대는 28.38(SD=4.31), 40대는 27.11(SD=3.71), 50대 이상은 26.76(SD=6.06)로 나타나 $F=3.49$ 로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는 연령이 20대는 17.80(SD=3.76), 30대는 18.85(SD=3.47), 40대는 19.09(SD=5.08), 50대 이상은 20.66(SD=4.32)로 나타나 $F=3.12$ 로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자체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환경은 연령이 20대는 28.05(SD=3.90), 30대는 28.58(SD=4.41), 40대는 27.81(SD=4.50), 50대 이상은 31.82(SD=6.10)로 나타나 $F=7.38$ 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환경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이 20대, 50대 이상'이 30대, 50대 이상이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수는 연령이 20대는 7.15(SD=2.26), 30대는 7.64(SD=2.28), 40대는 7.26(SD=2.19), 50대 이상은 8.42(SD=2.86)로 나타나 $F=2.79$ 로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은 연령이 20대는 5.28(SD=1.50), 30대는 5.20(SD=1.60), 40대는 4.70(SD=1.63), 50대 이상은 5.53(SD=2.11)로 나타나 $F=3.14$ 로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 전체점수는 연령이 20대는 58.28(SD=8.85), 30대는 60.26(SD=8.86), 40대는 58.87(SD=9.18), 50대 이상은 66.42(SD=12.71)로 나타나 $F=6.68$ 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 전체점수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이 20대, 30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직무만족 간의 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직무만족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는 동료와의 스트레스($r=.40$, $p < .01$), 부하 스트레스($r=.40$,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도전적 대처($r=-.12$, $p < .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 완화적 대처($r=.12$, $p < .05$), 회피적 대처($r=.13$, $p < .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 중 직무환경($r=-.22, p<.01$), 승진($r=-.12, p<.05$)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r=-.19,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료에 의한 스트레스는 부하 스트레스($r=.29,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도전적 대처($r=-.24,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 완화적 대처($r=.11,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 중 직무자체($r=-.18, p<.01$), 직무환경($r=-.22, p<.01$)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r=-.19,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하에 의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도전적 대처($r=-.20,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피적 대처($r=.11,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 중 직무환경($r=-.18,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직무만족 간의 상관계수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대인 관계 스트 레스	1	상 사	-										
	2	동 료	.40**	-									
	3	부 하	.40**	.29**	-								
스트 레스 대처 유형	4	도전적 대처	-.12*	-.25**	-.20**	1							
	5	정서완화적 대처	.12*	.11*	.09	.36**	-						
	6	회피적 대처	.13*	-.01	.11*	.18**	.61**	-					
직무 만족	7	직무자체	-.10	-.18**	-.10	.36**	.18**	.04	-				
	8	직무환경	-.23**	-.22**	-.18**	.31**	.19**	.16**	.44**	-			
	9	보 수	-.05	-.08	.10	-.04	.09	.13*	.17**	.50**	-		
	10	승 진	-.12*	.06	.01	-.05	.13*	.12*	.21**	.41**	.54**	-	
	11	직무만족 전체	-.19**	-.19**	-.11	.29**	.22**	.15**	.73**	.87**	.65**	.60**	-
평 균			12.41	11.68	12.17	49.72	57.33	27.84	19.02	28.64	7.54	5.08	60.28
표준편차			3.22	2.92	3.16	8.01	7.86	4.34	4.25	4.75	2.34	1.69	9.75

* $p<.05$, ** $p<.01$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도전적 대처는 정서 완화적 대처($r=.36, p<.01$), 회피적 대처($r=.18,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r=.36, p<.01$), 직무환경($r=.31, p<.01$)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r=.36, p<.01$)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 완화적 대처는 회피적 대처($r=.61,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r=.18, p<.01$), 직무환경($r=.19, p<.01$), 승진($r=.13, p<.01$)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r=.22,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피적 대처는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환경($r=.16, p<.01$), 보수($r=.13, p<.05$), 승진($r=.12, p<.05$) 그리고 직무만족 전체($r=.1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직무자체	상사	-.02	-.02	-.28	.19	.04	3.89**
	동료	-.23	-.16	-2.60**			
	부하	-.07	-.05	-.82			
직무환경	상사	-.21	-.14	-2.31*	.28	.08	8.96***
	동료	-.22	-.14	-2.30*			
	부하	-.13	-.08	-1.39			
보수	상사	-.06	-.08	-1.24	.16	.03	2.78*
	동료	-.07	-.09	-1.42			
	부하	.12	.15	2.52*			
승진	상사	-.10	-.19	-2.91**	.17	.03	3.18*
	동료	.07	.12	1.92			
	부하	.03	.05	.82			
직무만족 전체	상사	-.39	-.13	-2.04*	.23	.05	5.88**
	동료	-.46	-.14	-2.26*			
	부하	-.05	-.01	-.28			

* $p<.05$, ** $p<.01$, *** $p<.001$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동료($\beta=-.16,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사($\beta=-.14, p<.05$), 동료($\beta=-.14,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하($\beta=.12, p<.05$)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상사($\beta=-.19,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상사($\beta=-.13, p<.05$), 동료($\beta=-.14,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유형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 하위요인과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9> 스트레스대처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2	F
직무자체	도전적 대처	.18	.33	5.89***			
	정서 완화적 대처	.06	.11	1.53	.37	.13	16.17***
	회피적 대처	-.08	-.08	-1.23			
직무환경	도전적 대처	.17	.28	4.85***			
	정서 완화적 대처	.03	.04	.62	.33	.11	12.51***
	회피적 대처	.09	.08	1.19			
보 수	도전적 대처	-.02	-.06	-1.07			
	정서 완화적 대처	.01	.05	.62	.14	.02	2.20
	회피적 대처	.06	.11	1.60			
승 진	도전적 대처	-.02	-.11	-1.77			
	정서 완화적 대처	.03	.13	1.79	.17	.03	3.12*
	회피적 대처	.02	.06	.81			
직무만족 전 체	도전적 대처	.30	.25	4.28***			
	정서 완화적 대처	.13	.10	1.43	.32	.10	11.59***
	회피적 대처	.09	.04	.60			

* $p<.05$, *** $p<.001$

스트레스 대처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에 영향을 주는 모형의 R^2 값은 .13으로 13.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314)}=16.17,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대처유형 하위요인이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전적 대처($\beta=.33, p<.001$)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완화적 대처($\beta=.11$), 회피적 대처($\beta=-.08$)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형의 R^2 값은 .11로 1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314)}=12.51,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대처유형 하위요인이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직무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전적 대처($\beta=.28, p<.001$)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완화적 대처($\beta=.04$), 회피적 대처($\beta=-.08$)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보수에 영향을 주는 모형의 R^2 값은 .02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하위요인 중 승진에 영향을 주는 모형의 R^2 값은 .03으로 3.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314)}=3.12, p<.05$). 직무만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형의 R^2 값은 .10으로 10.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3, 314)}=11.59,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대처유형 하위요인이 직무만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전적 대처($\beta=.25, p<.001$)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완화적 대처($\beta=.10$), 회피적 대처($\beta=-.04$)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개별 인터뷰에서 20대가 받는 스트레스 원인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연령과 학력의 차이를 두지 않는 공정한 임용제도로 인하여 신입공무원과 같은 연령의 선임자는 같은 직급의 동료관계이나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선임자는 오히려 지시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전적 대

치는 50대가, 정서 완화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무자체, 직무환경, 보수, 승진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이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양홍석(1997)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에게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김유리(2000)와 이상희(2003)의 남성일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및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는 동료, 부하와의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정서 완화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직무환경과 승진요인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동료와의 스트레스는 부하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 완화적 대처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하에 의한 스트레스는 회피적 대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운주(2001)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나 이기원(2001)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도전적 대처와 정서 완화적 대처는 직무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와 거의 유사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보면 직무자체에 대해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환경은 상사와 동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에서는 부하에 의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고 승진에서는 상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전체적으로 상사와 동료가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교육행정조직 구성원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최용대(199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직무만족은 직무자체와 직무환경, 승진에서 도전적 대처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직급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도전적 대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고 의사 결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상위급 관리자가 여기에 해당되어 진다. 상위급 관리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승진, 보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 기업체에 비해 정년의 보장과 직급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크게 적용되어졌다고 보고 스트레스의 대처유형에서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도전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이나 단순한 근무환경의 개선보다는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 직종에 있어서도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승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도전적 대처를 높게 사용하는 점을 밝힌 데 의의를 두며, 대인관계라는 변수를 설정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직무만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미를 둔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 직종의 직무만족을 통한 업무효율향상을 위해서는 직무환경 개선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인관계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가 천안시와 경기도라는 지역으로 거의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전체 공무원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 향후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여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실증연구나 선행연구의 자료수집에 대한 어려움으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했다.

셋째, 공무원의 조직이나 직무 및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른 영향요인과 함께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고용이나 인사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조사방법을 설문지법에만 의존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지 못하였고 설문지법이 가지는 일반적인 오류 가능성과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성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설문지 방법 외에 인터뷰나 관찰방법 등을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실증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연구방안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의하면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보수체계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때로는 부정부패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또한 승진기회 등의 현 인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낮은 조직몰입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생산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검사보다는 연구 목적에 맞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직무만족 문항을 추출하여 예비검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셋째, 예비검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스트레스를 평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 스트레스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좀 더 정확한 직무만족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량 (2008). 공무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2000). 직무스트레스의 성차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웅 (1999). 역할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조직구성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근거 자기존중감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영향요인과 분석을 통한 직무만족도 제고.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세용 (2004).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 분석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관 (2008).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2), 171-202
- 송건섭 (2001).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측정과 평가.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9(3), 21-38.
- 신은경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불안정,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홍석 (1997). 스트레스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숙희 (2006).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원 (2001). 중등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3).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자 (2003).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하위직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 (2006). 초등교사의 성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직무만족도간의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현 (2005).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민 (2006).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우 (1994). 시험 스트레스과정에서 불안, 대처 및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용대 (1997). 교육행정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계관 (2009).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윤혜진 (2002).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원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97-210.
- 행정안전부 (2008). 공무원 총조사.
- Cooper, C. L. & Marshall, J. (1986). Sources of Managerial and White Collar Stress in Stress at Work, In S. P. Glowinkowski & C. L. Cooper(Eds), Managers and profession in Business/Industrial Settlings: The Research Evid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177.
- Cooper, C. L. & Marshall, J. (1978). "An Audit of Managerial Stress", *Journal of Enterprise Management*, Vol. 1, 185-196
- Emmert, M. A., & Taher, W. (1992). Public sector professionals: The effects of public sector jobs on motivation, job satisfaction and work involvement,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2 : 37-48
- Folkman, S.,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48, 150-170.
- Ganines, J., & Jermier, J. M. (1983). Emotional exhaustion in a high stress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6, 567-586.
- Hackman, J. R., & Oldham,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A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 16, 250-279.
- Havlovic, S. J. & Keenan, J. P.(1995). Coping with work stress :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R. Crandall & P. L. Perrewe(Eds.), *Occupational Stress : A Handbook*,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Press, 179-192.
- Hunt, J. & Saul, p. (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tenure, and Job Satisfaction in Males and Femal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8.
- Lawler, E. E., & Porter, L. W. (1967). The effects of performance on job satisfaction, *Industrial Relations*, 7, 20-28.
- Lazarus, R.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isdorfer, D. Cohen, A. Kleinman, & P. Maxim (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177-214. New York: Spectrum.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tterson, M. T., & Ivancevich, J. M. (1982). *Managing Job Stress and Health*, The Free Press, 108-109.
- McAllister, D. J. (1995).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No.1, 24-59
- Smith, P. C. & Kendall, L. M. & Hulin, C. L. (1969) :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 a strategy for the study of attitudes*. Chicago : Rand McNally.

<Abstract>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stress coping styles on job satisfaction
in government employees**

Shin, Myung-Sook ·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Government employees are considered that they are secured in duty by legal age. So, they have been preferred to any other employee. But, government employee shows high stress level in their job, because they are imposed on a sense of duty and responsibility for a people and requested in moral a norm of integrity and corrupt prevention.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styles and job satisfaction in the group of government employee were investigated. For data analysis, t-test, F-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aggressive coping styles and job satisfaction in male. In the case of the younger, they used emotional relief and avoidance coping styles for stress caused by colleague relationship, the elder group was observ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job environmental, salary, and promotion. The stress level for senior officers, colleagues and subordinates showed high levels. Avoidance coping style is used for stresses caused by subordinates. Senior officer and colleagues affect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job satisfaction. Promotion in the aspects of the stress coping style and job satisfaction. And only aggressive coping styles affected on job satisfaction overall.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senior officers and colleagues affect the stress of government employe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ggressive coping style is used to reduce these stresses. To improve government employees' job skill and effectiveness, government have to regularly hold training workshops and semina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improve duty environment.

Key words: government employe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coping style, job satisfaction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

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체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상담심리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자격은 학회정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다. 원고분량은 A4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마. 투고 시 원고 결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을 입금확인한다.
-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제 목: 18p, 신명조, 가운데, 진하게

저 자 명: 1줄 띄고, 10p, 중고딕, 오른쪽

소 속: 9p, 신명조, 오른쪽

요 약: 1줄 띄고, 9p, 신명조, 장평 95(자간 -5), 문단 모양(오른쪽 여백: 4, 왼쪽 여백:
4, 줄간격 140)

본 문: 9p, 신명조, 장평 95

그 립: 제목은 10p, 중고딕, 가운데; 출처는 9p, 중고딕, 가운데(그 외의 설명은 9p, 신
명조, 장평 95)

표: 제목은 10p, 중고딕, 왼쪽; 출처는 9p, 중고딕, 표 하단 왼쪽에(그 외의 설명은 9p,
신명조, 장평 95)

참고문헌: 제목은 14p, 견명조, 가운데; 내용은 9p, 신명조, 장평 95

부 록: 제목은 10p, 중고딕, 왼쪽, 진하게; 내용은 10p, 신명조, 장평 95

마. 제목의 번호 붙임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2칸에서 시작, 9.5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9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띄어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6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연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 “...”을 사용한다(“8. 기호입력방법” 참조).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연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연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 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박화문(2001)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 박화문(2001)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연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연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3인까지만 모두 기재한다.

(2) 4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 등으로 표시한다.

(3) 연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나, 괄호 앞 어절이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괄호를 쓰며 “&” 앞에는 쉼표를 찍지 않는다.

예 1: 신문자 외(1995), Boone et al.(1995)

- 예 2: 최근 연구(Boone et al., 1995)에서.....
- 예 3: 김현기 · 신호근(2005)은.....
- 예 4: 김수진 · 윤미선 · 김정미(2002)는.....
- 예 5: Hodson & Paden(1995)에 의하면.....
- 예 6: Darley, Aronson & Brown(1975)은.....
- 예 7: 한 선행연구(배소영 · 이윤경, 2003)에서는.....
- 예 8: 한 선행연구(Hodson & Paden, 1995)에서는.....
- 예 9: 최근 연구(Boone, Hodson & Paden, 1995)는.....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연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표기의 경우에는 단행본명을 “『 』” 안에 표기한다.

예 1: 김유숙(2002).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예 2: 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 (1) 국문 표기의 경우에는 “저자(연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 (2) 영문 표기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또한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한다.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인 경우에는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한다.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1) 국문 표기의 경우에는 논문명을 적은 후, 정기간행물명을 “『 』” 안에 표기한다. 권 및 호수는 이탤릭체로, 쪽번호는 정자체로 표기한다.
예: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아동학회지』, 14(2), 145-160.
- (2) 영문 표기의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적은 후, 정기간행물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권 및 호수는 이탤릭체로, 쪽번호는 정자체로 표기한다.
예: Jonhnsn. G., Otto D. & Clair. A. A.(1999). The influence of Background music on task engagement in frail, older persons in residential care Journal of Music Therapy, 36(3), 182-195.

사. 학위논문의 경우

- (1) 국문 표기의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명기한 후 학교명과 학위명을 표기한다.
예: 백선영(2007). PDD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 및 요인에 따른 대처행동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영문 표기의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Choi, Y. K.(2007). The effect of music and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on anxiety, fatigue and quality of life in caregivers of hospice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ansas.

아. 번역서의 경우: 역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역)”으로,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역)”으로 표기한다.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김수지 · 고혜정 · 권혜경(공역)(2004). 『음악치료학 개론 이론과 실제』.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발표제목과 자료명을 표기한 후, 발표장소를 아래 예와 같이 명기한다.

예 1: 윤미선 ·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1) 국문 표기의 경우에는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하고, 단행본명을 “『 』” 안에 표기한다. “발행도시명:”을 적은 후에 앞서 명기한 기관명에 준하여 “동 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한다.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 부.

(2) 영문 표기의 경우에는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한다.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1>, <그림-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별지로 제출한다.

라.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마.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3) *는 윗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p < .05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영문초록: 1쪽 이내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8. 기호입력방법

가. “『” 및 “』” 기호의 경우

- (1) 반각기호(도형)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 (2) 또는, [Ctrl] key와 [F10] key를 동시에 누른 후, 각각 “HNC코드”의 “30BB”와 “30BD”를 입력한다.

나. “.” 기호의 경우

- (1) 전각기호(일반)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 (2) 또는, [Ctrl] key와 [F10] key를 동시에 누른 후, “HNC코드”의 “3404”를 입력한다.

다. “...” 기호의 경우

- (1) 전각기호(일반)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 (2) 또는, [Ctrl] key와 [F10] key를 동시에 누른 후, “HNC코드”의 “3406”을 입력한다.

라. 반 칸을 띄는 경우

[Alt] key와 [Space bar] 를 동시에 누른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 1명
6.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 1명
7. 학제간 연구위원회 위원장 : 1명
8.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 1명
9.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 : 1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7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집행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학제간 연구 위원회 위원장,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집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19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0조 (상임위원회)

- 1) 학술 및 편집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 2) 국제교류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 3) 학제간 연구 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 4) 학교교육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교육 관련분야 연구
- 5) 임상치료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이외의 임상현장 관련분야 연구

제5장 회 의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집행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5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08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김수지(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최광현(한세대학교)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통합치료연구 제2권 제1호

2010년 5월 30일 인쇄
2010년 5월 30일 발행

발행처 : 한국통합치료학회
발행인 : 최 예 린(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2/E-mail: journal@ksit.or.kr
인쇄처 : 동 문 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